사회(자원)봉사 소감문

2025년도 봄학기 소감문

○ 서울대학교 전 ○ 인

다사다난했던 2025년 봄학기가 끝을 마주보고 있다. 이번 학기는 내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첫 번째 학기로서,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어려웠던 법과 제반 영역에서의 활동을 여러모로 경험하게 된 귀중한 시기였다고 자부한다.

우선, 가장 많은 활동 횟수를 기록한 봉사 영역은 번역이었다. 평소 어학에 관심이 있던지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로 법률 텍스트를 번역하여 다른 이들이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번역 봉사활동은 내게 적합한 활동이었다.

번역을 하며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총 4개국의 헌법 일부를 금 학기에 번역하였는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법영역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매번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법률 용어의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몇몇 단어는 라틴어 등 고어(古語)에서 파생되거나, 이슬람 국가의 경우 아랍어에 기원을 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에 번역 간에 의미를 손색 없이 전달하기 위해, 단어 하나에 매달려 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니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가 크게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사전을 뒤지며 힘겹게 찾던 단어의 의미도 곧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고, 법률용어에 담겨 있는 각국의 인식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어학 실력의 향상을 넘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특히, 헌법은 그 나라의 전체 법률 체계를 정초하는 것인 만큼, 오래 들여다보고 있을 수록 해당 국가가 헌법과 법률로써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기도 하였다. 번역 봉사란 단순히 텍스트를 옮기는 것이 아닌, 원 국가의 법영역에서의 뿌리를 인식하는 중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 리서치 또한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었다. 으레 판결문이라고 하면, 특히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라면, 세 번의 심을 거쳐 쌓여가는 판결문과 복잡한 사실관계의 확인, 그리고 이에 법리를 해석하여 적용하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서, 개별 사건만이 아닌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또 그만큼 접하는 데 부담이 느껴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도전해보니, 그리 심리적으로 기피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법률연맹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서식 덕분에 어디서부터 접근할지 감을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실제로 판결문을 분석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할지 생각하니 용이하게 해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판결문이라는 막연히 부담이 있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 또한 보다 도전적으로 해당 영역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법의식 설문조사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분류 및 공약 이행률조사와 같은 뜻깊은 활동도 많았으나, 지면의 한계 상 소감을 모두 적을 수 없어 아쉽다. 금 학기 간 봉사활동마다 조언과 피드백을 아끼지 않아주신 법률연맹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에 경험한 각종 봉사활동을 토대로, 나 스스로는 물론 우리 사회에 적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라는 따름이다.

○ 중앙대학교 양 ○ 혁

2025년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단의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있어 뜻 깊은 학기였습니다. 벌써 5회째 이어오는 봉사활동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보고자 네 가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첫째,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법률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고, 법률이 그리고 정치와 사람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매번 민선8기 공약조사를 이어오다, 이번 기회에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였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과정은 행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공약의 이행 평가 기준 설정과 자료의 정확성검증을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정책분석과 행정 감시의 실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나이지리아 헌법 및 파나마 헌법 번역 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낯선 국가의 헌법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법제도의 특징과 언어적·문화적 맥락을 해석하며 번역하는 작업은 법률적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가 간 법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비교법적 시각도 함께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제 재판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번 학기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의 구조와 판사의 판단 논리를 파악하며 법적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향후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의 활동은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권익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단 활동을 통해 사회와 법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익적 법률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박 ○ 루

법률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5회차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국내외 사법제도·헌법 관련 번역 및 조사 활동 및 판결문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 국가의 헌법은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과 정치 체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직역을 넘어서, 조문의 법적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번역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법적 개념과 통치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며,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중했던 번역 과정을 통해 언어가 가지는 법적 권위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판결문에 대한 리서치를 하며, 학술적으로만 접근했던 '법'이라는 영역을 구체적인 판례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실제 판결문을 분석하며, 쟁점 정리, 당사자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그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판결은 민사, 행정, 그리고 헌법적 쟁점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법원이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조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판결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해석의 층위'였습니다. 같은 법조문이라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고, 법리는 때때로 정책적 고려와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교원의 징계권한 문제, 조례와 법률 간 위계 등 복잡한 법리 구성을 읽어내는 과정은 큰 도전인 동시에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리서치의 정확성을 위해 다수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거나, 법률 용어를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며, 단순한 요약을 넘어 법적 담론을 보다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리걸마인드를 키우며,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법률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깨달았습

니다.

제게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 정의 실현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최 ○ 호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 올해 봄학기에도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깊이 있게 체감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은 자료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를 통해 법률연맹의 취지와 활동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고,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월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등 생소한 국가들의 헌법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 단순한 번역을 넘어 각국의 법체계와 권리 보장 방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법률문서 번역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법제도를 비교하며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겨울학기에는 아무래도 번역봉사를 처음하다 보니 조금 난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정합적이고 완성도 있는 번역본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인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저를 포함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에는 민선 8기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신우철 지자체장과 김한종 지자체장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약 이행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지자체에서 많은 것들을 공약하고 추진한다는 것이었고, 공약은 선거철에만 드러나고 이후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여러 공약이 실행되어 주민들의 삶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향후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때 후보자들의 공약에 더욱 주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토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 봉사가 끝난 이후에도,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있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어,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봉사활동이 아니라면 평소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봉사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봄학기에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고, 실천적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시민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관리해주시는 관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전 ○ 훈

비교적 늦게 법조인의 길을 꿈꾸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 중 법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발견했을 때, 법조인의 진로를 고민해온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기대를 품고 지원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법정이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첫 방문 당시에는 어디서 방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고, 낯선 분위기에 긴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번 법원을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절차에 익숙해졌고, 점차 사건의 흐름과 쟁점에 집중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 검사, 변호인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건을 직접 지켜보면서,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변호인을 보며 법조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더 단단해졌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의 언어와 논리를 깊이 있게 접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동안은 판결문을 전문으로 읽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재판의 전개 방식과 판사의 논리를 직접 확인해보는 경험 자체가 새로웠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고, 개인적으로도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선정하고자 했고, 그 결과 장애인의 편의점 접근권을 다룬 <2022다289051> 사건과 외국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의무를 다룬 <2017다219232> 사건을 선택했다. 두 사건 모두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판결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판결문을 정독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사이를 고민하고 조율한 판사들의 논리와 태도가 느껴졌고, 그것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법률 언어의 무게감을 새삼 체감했다. 미얀마와 네팔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단순한 언어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법 전문 용어를 정확히 번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조항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미얀마 헌법은 군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보장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군부 독재와 내전에 빠진 미얀마의 아픈 현실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활동을 통해 법은 단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민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지자체장 활동 점검은 실생활과 밀접한 법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을 모니터링하며,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법과 제도가 시민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체감했고, 동시에 그 실현 과정에 있어 사법의 감시와 통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법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나 절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한 경험마저도 내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법률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법조인의 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 서울대학교 이 ○ 솜

2024년 봄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에 이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해라 바쁠 것이 예상되어 봉사활동을 쉬어갈지 고민했지만, 시간을 쪼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번 학기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법률번역 활동과 필수활동 두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률번역 활동에서는 마샬제도, 네팔, 나이지리아 등 낯선 나라들의 헌법을 맡아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알던 나라의 위치 및 인구와 언어, 문화, 역사와 헌법 등을 조사하며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개발도상국으로 알고 있던 나라가 헌법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경제 발전 정도에 무관하게, 세계의 많은 나라

들이 헌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펼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나라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며, 헌법이 존재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정세가 불안정해 언제 다시 헌법이 폐기되고 독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기도 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며 헌법이 자주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보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이 겹쳐 보이며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등은 심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예전보다 훨씬 잘 수호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사한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더 강화되고 정세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두 번째 필수활동이었던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를 하면서, 공약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알아보는 활동은 흥미로웠습니다. '정치인들은 으레 선거 때가 되면 지키지도 못할, 듣기 좋은 공약을 남발한다'라고 막연히 생각해왔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볼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며, 단순히 공약을 '실행했는가'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약이 실행되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주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기 활동들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률 공부와 사회 활동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 일반　이 ○ 규

지난 2024년도 겨울학기 봉사활동 이후 바로 연속된 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했다. 겨울학기의 봉사활동이 너무 감명깊었고 재밌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마음으로 2025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신청했지만 5월에 예정되어있던 학사 시험일정이 봉사활동 기간과 겹쳐 시험공부 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다. 2024년도 겨울학기처럼 법정모니터링이 필수 봉사활동으로 채택된다면 아무래도 이동하는 시간이 꽤 소모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학기 필수 봉사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 아닌 법정치의식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였다. 다행히 법정치의식조사의 설문은 참여하고 있던 스터디 멤버들이 참여해주었고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 시험공부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봉사활동도 알차게 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필수 봉사활동 중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는 나로 하여금'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사실 29살이라는 나이가 적은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소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크게 크게 이슈가 되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나 그로 인한 이번 대선 정도에나 관심을 조금 가졌을 뿐이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주위 어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축내는 놈들'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약이행률조사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울 노원구, 금천구 두 개의 구의 구청장의 공약을 조사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공약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대부분이 완료되었거나 꽤 진행되고 있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아무리 그래도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만큼 나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일텐데 그걸 다시금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필수 봉사활동 중 법정치의식조사도 꽤 흥미로웠다. 사실 요즘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정치성향으로 따지자면 대부분 보수측에 포진되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은 고작 설문 4장만으로 세상엔 역시 내가 모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물론 법관련 지식과 판결문을 보는 능력도 언제나처럼 키워줬지만 특히 정치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눈을 열게 해주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지식을 쌓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2학기 연속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구성원 여러분들, 내 판결문 리서치와 필수 봉사활동들을 검수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

○ 한국조지메이슨대학　김 ○ 현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법과 사회를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제공해주었다. 각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법과 행정, 그리고 시민의식의 현실을 드러내주었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먼저,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직접 재판 과정을 방청하면서 재판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지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재판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반 시민이나 처음 방청을 오는 이들에게는 절차나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특히 방청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보완된다면 법원이 더욱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의 공정한 판단력과 권위가 인상 깊었고, 검사와 변호사의 태도는 다소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느껴져 아쉬움도 남았다. 다만 법원 직원들은 재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받침하고 있어, 그들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실감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시민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응답에서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회피적인 태도도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현재 청년 세대의 법과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심 자체가 크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시민 교육이나 공공 소통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뉴스 기사로는 알 수 없는 판결의 논리와 구조를 실제 판례를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를 보며 자유심증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균형, 판사의 해석 논리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과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법 해석'의 중요성을배웠다. 법원이 앞으로도 사용자 측의 위장 계약을 철저히 검토하며, 노동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길 바란다. 동시에 현장의 노동자들이 법률 지식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판결문은 방대한 분량과 법률 용어로 인해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웠다. 일반인을 위한 요약본이나 해설자료가 제공된다면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법의 실제적용 과정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행정과 정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단순히 공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이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면서, 행정의 복잡성과 현실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주민과의 갈등이나 실행 불가능한 공약의 존재는 정치적 약속이 단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민의식, 법의 작동 방식을 체감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관심과 실천을 이어가고 싶다.

○ 서울대학교　변 ○ 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고 있는 변교화입니다. 법조인의 꿈을 안고 학교생활을 하던 중, 추천을 받고 지난 겨울방학에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잘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섰는데, 해야 할 것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처음으로 한 활동은 오티인데, 오티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쉬웠지만, 보내주신 자료가 양이 많고 알차서 그것을 읽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티회신문을 작성하며 참고한 여러 명언들이나 사상들이 저의 권리와 법에 대한 인식을 더욱 매끄럽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티 이후 부푼 기대를 안고 번역봉사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법조문들을 분석하다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자메이카 헌법을번역할 때는 노하우가 없고 익숙하지 못해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네 차례의 번역봉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대에 부응하게, 각 나라의 헌법을 살펴보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 국가구조의 전반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만 분석한 것이 아닌, 여러 나라의 헌법을 넘나들며 공부하다 보니각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헌법에 잘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사용하여 들여다보니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 또한 얻을 수 있어서 그 점이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비록 겨울학기에는 필수활동에 대한 물리적 제약으로 완주하지 못했지만,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봄학기로 연장을 요청드렸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를 승낙해 주셔서 이번 학기에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새롭게 수행한 활동은 두 가지인데 모두 저에게 깊은 가르침을 남겨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해보니,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법정치의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들에 놀랐습니다. 저도 설문조사를 재미삼아 해 봤는데, 평소에 정리되지 않았던 저의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이 묶이니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개별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더욱 정리해서 저의 판단을 확실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이행률조사는 봉사활동을 통틀어 가장 가치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두 구의 구청장 공약을 조사했는데, 확실히 공약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행률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공개하는 구가 있는 반면, 공약이 애매하거나 여러 공약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수행하며, 자료 공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구도 있어 확실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구청의 역량에 따라 많은 구민들의 생활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저의 거주권에 있는 지자체장의 공약이행률을 들여다보고 선거나 의견행사의 기회에 활용하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의 꿈을 키워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영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깊이 있는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번역, 설문조사, 판결문 리서치, 정책 분석 등 법률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주는 의미와 영향도 컸습니다.

첫 시작은 3월 24일,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자세와 목적을 이해하며,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라는 봉사의 본질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진 것은 4월의 번역봉사였습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로코 헌법을 번역하는 봉사에 참여했으며, 각각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와 표현 방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단순한 언어 해석을 넘는 깊이 있는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 헌법, 모리셔스 헌법, 모로코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이 법 조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로코 헌법에서는 종교적 요소와 국가의 통합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눈에 띄었고, 모리셔스 헌법에서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공존을 위한 조정 장치가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법률을 단순한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이 녹아 있는 집합체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5월로 넘어오면서 활동의 성격도 더 현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5월 2일에는 법정의식조사 설문지 작성을 위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활동은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설문지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법의식 수준을 진단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통계로 환원되는 숫자 이상의 생생한 사회적 목소리를 듣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5월 20일과 26일에는 각각 다른 판례에 대한 리서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두37544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관련 판례였고, 두 번째는 '2023도6411 스토킹법' 판례였습니다. 이들 판결문은 법조문 해석과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을 직접 느끼게 해주었고, 특히 스토킹법의 경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게 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판결문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내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한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8일에는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이재호, 강범석 시장의 공약 실현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매우 긴 시간 동안 정량적 자료와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야 했기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약속이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공공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시민의 역할'과 '사회 참여의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법률 관련 활동이 많았던 만큼, 저는 앞으로 법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로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여러 입장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부산대학교　홍 ○ 희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될 활동을 찾던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실생활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평소에 접하기는 힘든 활동들을 하며 보람을 느꼈고, 로스쿨 등의 진학·취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꼭 한 번은 해보는 것이 좋을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시한 활동은 첫 번째 필수활동이었던 청년대학생법정치의식 설문조사였습니다. 진행한 활동들 중에서는 가장 간단했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면조사가 원칙인 활동이었던지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탁했는데, 성별과 연령대도 비슷해 다들 비슷한 응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의외로 다양한 답변이 나와 조금 놀라웠습니다. 다만 정치성향에 따라 답변이 갈릴 만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같았던 사람들은 다른 응답도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역시 성향이 같으면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도 대략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지의 내용이 우편향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 또한 비슷한 감상을 받아 이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찬반과 별개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한 활동은 법률소비자연맹 활동 중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려울 줄만 알았던 판결문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판결문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골랐던 판결문이 창작물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문이어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 많아 판결문의 분량이 아주 길었는데 이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1.2심은 판결 요지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판결 요지를 찾았어야 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판결 요지를 작성하는 데에만 몇 시간은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판결문 리서치를 끝내니 두 번째부터는 나름 방법을 찾아 5시간으로 활동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도 짬을 내 판결문 리서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한 활동은 두 번째 필수 활동인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였습니다. 평소에 막연하게 정치인들이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실제로 어떤지는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데, 활동을 하며 생각보다 공약의 이행 과정이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공이 정책학인 만큼 앞으로 배울 과목들과 연관이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공약이 생각보다 많아 당황했는데, 중복도 꽤 있었고 사실상 한 개인 공약을 두 개로 나눠놓는 등 전임 활동자가 조금 미숙하게 활동한 것 같아 이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행한 활동들은 전부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경험할 일 없었을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첫 경험이라 일정 관리를 잘하지 못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다음 활동에는 이번에 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졸업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 용인대학교 박 ○ 정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봄학기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회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며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확장하고, 실제 법률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학도로서 법률의 실무적 측면과 사회적 기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법 정치 의식 설문조사, 민선 8기 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 여러 외국 헌법 번역, 판결문 리서치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공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약은 단순한 선거 운동이나 정치 전략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과 투명성의 중요한 근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외국 헌법을 번역하는 작업은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꼼꼼히 읽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각국의 역사적 배경, 정치 체제, 문화적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법조문 하나하나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체제와 문화, 정서에 따라 법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눈으로 확인하며,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각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을 반영한 결과물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총 3개의 서로 다른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법 체계를 비교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비교 작업은 법률 해석 능력을 한층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나 체계가 오히려 그 나라의 고유한 법 문화와 시대적 맥락을 드러내기도 하여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률의 '현장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요한 실제 사건과 판결문을 통해 법률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법이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관들이 판결문에서 어떤 논리와 가치 판단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지를 분석하면서, 법적 사고방식과 법리 구성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은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질서 유지를 위한 매우 섬세하고 복합적인 도구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법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낀 것은 법률의 본질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법률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사회적 도구입니다. 이번 경험은 법률에 대한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법률이 사회 통합과 평화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정 ○ 예

법조인을 꿈꾸며 진로를 준비하던 중,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고, 번역봉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전 총 4회의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치의식설문조사,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진행한 판례는 <혼인 외 출생자의 범인도피죄> <가정폭력 상황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의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절도 고의 인정 여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반환청구> 총 4건이었습니다. 활동 전에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나 리서치를 거듭하면서 점차 법률 문장과 용어에 익숙해지고 쟁점을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부분은 강의에서 배운 개념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이 단순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판결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범인도피죄> 판례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생물학적 아버지의 도피를 도운 호인 외 출생자의 범인도피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의 인지가 없었으므로 법률상 치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아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논리성과 형평성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족의 범인도피를 불처벌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자연적 감정과 도덕적 딜레마를 외면하고 법적 논리에 치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법정치의식설문조사는 청년들의 법, 정치의식을 수렴하여 정의 실현과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필수봉사활동이었습니다. 다양한 응답을 분석하면서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이 세대 간,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감하였습니다.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은 정치와 법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부천시장과 성남시장의 공약률이행률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향을 잡았고 각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실제 진척도를 파악하고 기사 등을 통해 대중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공약들 중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민주주의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활동 시간 채우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에 중심을 뒀습니다. 이론에서만 배웠던 법학 지식이 실제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내가 배우는 법이 단지 텍스트가 아닌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법률

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안 ○ 현

법과 제도는 추상적인 텍스트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서 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러시아 형사소송법 번역, 그리고 민선9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이었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서로 다른 분야 같지만, '법과 제도의 실천성'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내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또래 친구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든, 그것이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실효성을 잃기 마련이다. 일부 응답자들이 법을 '강한 자 편의 도구'로 인식하거나 정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제도 자체보다는 그 실행과 집행에서의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이를 통해 나는 법치주의의 기반은 단지 법전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러시아 형사소송법 번역 작업은 법의 언어가 얼마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존하는지를 통찰하게 했다. 한국과는 다른 법전 구성 방식과 용어 선택을 접하며,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해석과 비교법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특히 러시아 형사절차의 '예심' 개념이나 국가 권력의 개입 정도를 한국과 비교하며, 각국의 법제도가 지향하는 가치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는 단순히 외국법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법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상대적으로 조망하게 해주는 기회였다. 향후 로스쿨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민선9기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는 '책임정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경험이었다.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보고서를 대조하며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모호했다. 숫자상의 이행률이 높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정도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 성과와 질적 변화 사이의 간격을 느꼈다. 이를 통해 정치의 평가는 수치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세 활동은 모두, '법과 정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한 나의 관심을 구체화해주었다. 책에서 배운 개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때로는 왜곡되며, 어떤 조건에서 실효성을 가지는지를 스스로 탐구해볼 기회였다. 나는 이제 법을 그저 암기나 기술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이 분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믿는다.

○ 성균관대학교 장 ○ 원

2025년 봄,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봉사활동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률 및 정치의 영역이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는 주로 헌법 번역 봉사와 설문조사, 공약이행률 분석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 활동은 저에게 깊은 인상과 학습 효과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활동은 외국 헌법 번역 봉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각 나라가 가진 정치체계, 역사적 배경, 문화적 차이점이 법문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법적 용어의 해석과 문맥에 맞는 표현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법학적 사고력과 언어 감각이 동시에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국의 기본권 조항이나 권력 분립 구조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의 특성과 강점, 그리고 개선점까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법률 문서를 다룰 때 요구되는 꼼꼼함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몸소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법정치의식조사 설문조사 활동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한 자료 수집을 넘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 마주하고 대화하며 그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기대와 불신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치와 법률에 관심은 있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멀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 조사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하면서,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 시민 참여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책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데이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의 모든 봉사활동은 제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량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각 활동은 서로 다르면서도 법과 정치라는 공통된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 안에서 저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추구하는 가치인 '참여'와 '감시', 그리고 '책임'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권 ○ 수

2025년 군복무를 마치고, 나에게 법조인이라는 꿈은 더욱 확실해졌다. 기득권과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국선전문변호인'이 되겠다는 나의 신념은 더욱 커져갔고, 이 신념을 뒷받침해줄 활동들을 하고 싶었다. 그렇게 여러 활동들을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봉사활동은 단순히 '로스쿨'을 들어가려는 활동들이 아니라 나중에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활동들 중에서 가장 처음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이었다. 사실 법조인을 꿈꾸고 있지만 이 봉사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방청을 한 번도 해본적도 없고, 심지어 법원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직접 방청을 하니 정말 많은 것을 느꼈으며 왜 지금까지 가지 않았는지 많이 후회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점은 '재판의 중요성'이었다. 형사재판에 경우 재판 하나에 따라 범죄자가 되거나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피고인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사재판은 '돈'과 관련된 재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생명과도 같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재화인데, 패소를 하여 모든 재판비용과 돈을 내게 된다면, 일반 소상공인 및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민사든 형사든 모든 재판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것임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안들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판단하는 법조인의 중요성을 다시 알 수 있었다. 혹자는 법조인들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본다면 절대 대체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판사와 변호사, 검사는 모두 그 법 문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 상황 및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재판과 법조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다. 학교 교양수업으로 법 과목을 들었을 때 사례와 함께 이론을 배우기에 판례를 아예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책에 나온 사례들은 판례의 전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부만 보여주기에 전문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찾고 싶은 판례를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3심의 경우, 이와 관련된 1심과 2심도 이제는 잘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판례를 읽으면서 결론

을 내리는 판사님들의 숭고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사건은 '학대치사죄'였다. 판사님들께서 판결을 내릴 때 판단 이유로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에 대한 처벌을 말하는 과정에서 큰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형을 구형하는 검사 측도,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변호인도 그 역할에 맞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판결문을 보면 검사측과 피고인측을 생각하는 세 역할의 법조인의 모습을 재판과 다른 '글자'로써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글자를 읽으면서도 재판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몰입이 잘되었으며, 판사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필수활동으로 진행했던 '법정치의식조사'와 '민선8기공약 이행률조사'를 통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정치적인 적극성과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치에 관심은 많으나 정치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양당제의 폐해를 알 수 있었다. 1이 아니면 2인 이분법적인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조차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기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 침묵의 사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지자체장들은 조금 더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란 선거 당시에만 일회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다. 앞으로 지자체장들 및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80개씩 남발하는 것이 아닌 3,40개씩 적더라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법과 법조인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제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에도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들을 진행하여 법체계는 물론,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민대학교 유 ○ 재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였지만, 돌아보니 법에 대한 편견과 정치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치·사회적 국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정치색을 떠나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판결문 리서치, 법정 모니터링,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까지 진행하며, 이번 봉사활동은 내 생각을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는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내게 크고 작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 건의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내게는 적잖은 반전이었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판결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나 뉴스를 아예 찾아보지 않았지만, 정작 판결 자체가 오히려 내게 고정된 생각을 심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리서치부터는 결과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두 번째 리서치에서는 '법이 생각보다 온정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세 번째 리서치에서는 '법이 단호할 땐 굉장히 단호하구나' 하는 걸 느꼈다. 법률 용어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건들, 판결문의 형식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해했을 때의 쾌감이 커서 점점 더 분석에 욕심이 생겼다. 많은 양을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각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선례와 법리를 선택하는 법관의 재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법정 모니터링은 귀와 손이 가장 바빴던 봉사였다. 처음 방청했을 때는 꼭 내가 죄를 지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공간이 주는 힘은 이렇게 크다. 총 7번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법원 내부에는 점차 익숙해졌지만, 법정 내부에 들어가면 여전히 눈치를 보게 되었다. 전공 탓인지 법원 공간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는데, 구조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배치나 서늘한 온도, 특유의 정숙함이 법정을 더욱 엄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의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동시에 볼 수 없는 공간들이 괜히 더 궁금해지는 곳이기도 했다.

모니터링 봉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드라마처럼 커다란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실제 법정은 판사님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고, 변호사와 검사의 대화도 짧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판사님의 성향이 사건마다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따뜻한 인상의 판사님도 계셨고, 다소 무심하고 피곤해 보이는 판사님,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판사님도 계셨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분위기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이번 학기 필수 봉사활동 중 하나였는데, 참여하면서 전체 봉사자 통계 결과가 궁금해졌다. 조사 대상이 대부분 주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수집한 결과에는 어느 정도 편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내 조사 결과는 통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나 역시 스스로 답변해보며 현재 내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는 가장 힘들었던 활동이었다. 200개가 넘는 공약을 일일이 확인하고 관련 기사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껏 이렇게 자세히 어떤 후보(현재는 당선된)의 공약을 살펴본 경험이 없어서, 생각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공약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히 시장의 경우, 그 도시와 관련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내걸 수 없는 공약도 많았고, 그런 점에서 시장이 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다.

법과 정치는 결국 우리가 사는 일상과 매우 밀접한 영역이기에, 의식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잠시 내려두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람과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 고려대학교 김 ○ 재

2025년 상반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법'이라는 주제를 보다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는 뉴스나 수업 시간에만 접하던 사회적 이슈들과 법률적 논의가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일상 속 고민이 되었고, 단지 관찰자가 아닌 작은 실천을 통해 참여자이자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은 오리엔테이션 교육이었다. 비대면 자료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어떤 단체인지, 왜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인 '법의 감시자'로서의 시민 역할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었고, 단순히 도움을 주는 봉사자가 아닌 사회 변화를 위한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이 계기를 통해 갖게 되었다.

이후 진행한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주변인들의 정치 인식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주변 대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어떤 친구들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주기도 했다. 특히 "누군가는 이런 걸 해야 바뀌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활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정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에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총 25시간 동안 여러 언론의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정보의 출처와 의도를 따져보는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다. 기사 내 표현이 얼마나 중립적인지, 팩트와 의견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섬세한 일이었다. 또한,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의 중요성 또한 깊이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나의 개인 일정에 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에는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돌아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생소한

자료에 직접 접근해보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법의 언어에 대해 더 익숙해질 수 있었다. 법조문과 판결문 사이의 미묘한 차이, 판례가 가지는 구속력과 해석의 다양성 등은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학 지식을 현실로 끌어내는 기회였다. 특히 같은 사안이라도 법원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민하게 되면서 법이 단지 '문자'가 아닌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현재 학교에서 형법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이를 생활 속에서 적용해보는 느낌이라 감회가 남달랐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정치인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보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이나 국회 입법 현황 등을 찾아보며 단순한 '비판'이 아닌 '근거 기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공약 이행 여부가 단순히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시민 스스로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작은 시 군 군수님들도 공약이 이렇게 많으며 임기 중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모습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잘하시는구나 라는 새로운 느낌도 받았다.

돌아보면 이번 활동은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었다. 법을 통해 사회를 보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사회의 복잡함을 모두 이해하기엔 부족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싶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활동을 기획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방 ○ 솔

나는 2024년 봄학기를 시작으로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현재 2025년 봄학기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연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은 예비 법조인로서의 진로를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주었고, 특히 올해 봄학기의 활동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단순한 행정 보조나 자료 입력을 넘어, 실제로 국가 간 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국민의 정치 인식과 참여도를 조사하며,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법은 흔히 교과서 속 추상적 규범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이번 학기 동안 수행한 봉사활동들은 법과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실감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몰타, 네팔, 니카라과, 팔라우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을 넘어서, 각 국가가 어떤 가치와 원칙을 헌법에 담아내고 있는지를 읽는 경험이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정치의식 설문조사와 공약 이행률 분석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참여, 그리고 정치적 책임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봄학기의 봉사는 내게 법률이 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도구이자,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법조인의 진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법이 단지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실제 사회와 긴밀히 연결된 '살아 있는 언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내가 경험한 세 가지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배움을 성실히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몰타, 네팔, 니카라과, 팔라우, 파키스탄 헌법 번역 봉사는 단순한 언어 작업을 넘어,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정치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예컨대, 몰타 헌법에서는 유럽 연합과의 관계 및 공공재정의 독립성 보장 등이 인상 깊었고, 네팔 헌법에서는 다언어·다민족 국가로서의 헌법적 포용성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니카라과와 팔라우의 헌법 조문에는 식민과 독립의 역사, 그리고 자주권을 둘러싼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에, 단어 하나를 옮길 때에도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법적 개념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했다. 파키스탄 헌법의 경우, 이슬람 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주적 제도 사이의 긴장관계가 조문 전반에 걸쳐 드러났고, 특히 종교와 법의 경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했다. 법의 언어는 단순히 법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살아온 궤적을 보여주는 '정치적 문학'이기도 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둘째, 법·정치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활동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설문 결과를 정리하며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법률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 제도의 문제를 넘어, 법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맞물리면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며, 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어떻게 실질적인 사회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셋째,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에서는 부산진구와 동래구를 맡아 분석하였다. 자치단체장이 약속한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를 조사하며, 지방정치에서 '책임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했다. 가시적인 실적은 많았지만, 이를 엑셀 파일에 직접 정리하며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여전히 '추진 중' 혹은 '미이행'으로 남아 있어 실망스럽기도 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공약들이 실행 단계에서 주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정치도 엄연히 시민 감시와 참여가 필요한 '작은 국가'임을 깨달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였던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법률과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서 시민과 맞닿는지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기에 나에게 매우 뜻깊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경험은 내게 '법'이 단지 교과서 속 추상 개념이 아닌, 인간 삶의 방식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도구임을 몸소 깨닫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선을 유지하며, 법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

○ 경희대학교　강 ○ 재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서도 특히 법정모니터링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률조사 의정모니터링, 그리고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과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법정모니터링을 선택하였는데, 법정의 분위기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역할을 맡은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단순히 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분류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보며 정당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정치인이 단순히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봉사활동 중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복잡성과 법률 용어의 난해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며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먼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원하는 사건의 판결문

을 검색하고, 필요시 판결문 제공신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도출한 후 원고와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및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결문을 해석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법률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과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이 저에게 준 깨달음과 배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의,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경북대학교 장 ○ 현

저에게 2025년은 대학생 신분으로서 상당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바로 이전부터 고대하던 프랑스 파리로의 교환학생 파견을 목전에 둔 순간이었는데, 외국에서 법학을 수학하며 인생에 다시는 없을 귀중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에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단기로 외국에 체류하며 공부를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입장이었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도움이 될 대외활동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비대면 봉사활동이고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저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24년 여름학기에 이미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결과 역시 그러했습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저번 봉사활동에서 재밌게 진행했던 법원의 재판을 방청하는 활동을 할 수는 없었으나 여러 나라의 헌법을 해석하는 등 새로운 종류의 활동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 마무리와 함께 동시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할 단계에 다다르니 한 해의 시작을 매우 윤택하게 한 것 같아 한국에 돌아가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조인이라는 꿈을 향해 노력해나갈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법학 대외활동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측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25년 여름 봉사활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강 ○ 영

이번 활동은 굉장히 바쁜 학기를 보내는 와중에 진행됐지만 그만큼 보람찼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먼저, 이번 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자체장공약 분석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는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 지자체장이 잘하고 있을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보내긴 했어도 딱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었다. 잘하고 있겠지,과연 잘하고있을까? 라는 모순되는 마음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비록 타지역의 지자체의 행정을 점검하였다 하더라도-생각보다 공약을 잘 이행하는 지자체장도 있었고, 정말 엉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장도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민주시민으로서 진정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저 뉴스 기사가 나왔을 때, 좋은 일인 것 같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인 것 같으면 속으로 불평하고 욕하는 그런 겉무늬만 민주시민이었던 것이다. 내 돈으로 정부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아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분석하지 라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었지만, 조사하다보니 재미도 있었고 핵심은 '명확한 공약 목표>예산 편성>기관 협의>실제 이행'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홈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들로 비교적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내가 조사한 의원 두 명은 정말 극과 극이었다. 모 의원은 거의 공약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기재하여 이행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의원은 거의 이행된 공약들이 없었고 언론에서 어떻게 해야한다 라는 주장만하고 있었다. 이걸 보면서 학기가 끝나고 여유로워지면 우리 동네의 지자체장이 예산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역시나 이번 학기 민법총론 과목을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해주었다. 이번 활동으로 선정한 판결문 5가지는 모두 민사재판으로만 구성했었는데 내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법, 민사재판은 방청을 가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재미도, 흥미도 없었다. 판결문을 봐도 사실관계가 뭔지, 쟁점이 뭔지, 그래서 결론이 뭔지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 수 없어서 이대로 민법 공부를 포기해야하나 했다. 그러나 로스쿨 진학과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민법 공부는 필수였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민사재판 판결문을 많이 접하면서 독해력을 기르고 쟁점 파악능력을 기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이 덕분에 웬만한 민사재판 판결문의 쟁점과 숨겨진 이면의 의미, 사실관계, 판단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뤘던 사례인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 파트는 따로 종이에 적어가며,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법리를 공부했기에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을 들인만큼, 제대로 법을 공부하고 판결을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뿌듯하고 이러한 활동을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필수활동이었던 청년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도 굉장히 의미있었다. 질문이 생각보다 본격적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 공정과 공평, 타당, 정의, 형평 등의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도 동기와 깊은 토론을 하며 설문조사를 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동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임해주었고 이러한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생각을 하니 정말 보람있었다.

앞으로 로스쿨 진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리트 시험 준비로 인해 바빠진 관계로 봉사활동을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은 아주 뜻깊은 의미이자 경험으로 내게 남아있을 것 같다.

○ 경희대학교 강 ○ 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

대통령 선거로 뜨거웠던 2025년 봄 학기, 법률소비자 연맹의 활동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공약 이행률 조사,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활동 모두 법률 소비자연맹의 봉사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이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많이 논쟁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관심, 결혼과 자녀에 대한 관심도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설문지에 담았는데 다른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떤 결과로 나올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일하게 될 대학생들이 가진 관심과 생각을 조사하는 활동이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학기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두 분의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공약이 이행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많이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며 앞으로도 공약을 잘 지키실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공약 이행률 만큼이나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입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주제는 학교 폭력과 교사와 학부

모의 소송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소송까지 가는 상황은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무조건 덮고 얼버무려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나 침해 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법적 대응은 오히려 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학생의 인권은 정말 많이 신장하였으나 교권은 정말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사라는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선생님은 교육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직업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약해진 교권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교육 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교사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에서 , 학교에서 교사를 지켜주고 교권을 안정시켜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회 문제를 더 많이 직면하고 생각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정치, 정책,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비판적 사고 능력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민으로서 더 성숙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학기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학기였습니다.

○ 부경대학교　강 ○ 연

2025년도 첫 봉사활동을 법률연맹에서 신청하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매번 아쉬움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유동적인 상황도 이해가 된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도 법률연맹의 봉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은 나에게 뜻 깊다. 지금까지 2024년도 봄학기, 여름학기 봉사활동을 이수해왔는데 이번 봉사활동은 작년과 다르게 여유롭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봄학기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진행되어 그만큼 활동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내가 신청한 활동은 '번역 봉사'와 필수 활동인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이다. '번역 봉사'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게 되는 활동이다.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번역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프랑스어 번역을 신청하였다. 프랑스행정사법법을 약 20페이지 정도 번역하면서 프랑스의 행정법원과 행정 항소법원, 조정절차, 행정법원의 운영 등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의 구조는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인 반면 프랑스는 1심 지방행정법원, 2심 행정 항소법원, 3심 국사 평의회(Conseil d'État)로 구성된다. 국사 평의회는 단순한 최고법원이 아니라 행정부 자문기관 역할도 겸한다. 또 우리나라는 사법부 내 행정재판을 포함하는 통합된 사법체계 즉, 단일 구조를 형성하지만 프랑스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이원적인 구조로 독립된 행정재판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번역 봉사 전에 프랑스의 전체적인 법 구조의 원리와 특징을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와 구체적인비교 양상을 떠올리기 어려웠을 것이다.'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는 총 20명의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5년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바가 컸다. 성별·학교·연령을 불문하고 모두가 같은 답을 내놓기도 했고,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고르게 답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내가 조사한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 정치권력과 국가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등을 분석하고 고찰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는 2024년도 여름학기에 진행되었던 제8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공약 분류 활동을 토대로 진행된 활동이다.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단체장의 공약을 분류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각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공약사항이 두 단체장 모두 120개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고, 그만큼 조사를 하는데 각 6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 같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뉴스 기사·누리집·포털을 찾아보고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이행 점수를 매겼다. 재임 기간 중에 대부분의 공약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가 이행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사회적·정치적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못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지역을 조사하지 않아서 지역별로 이행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를 직접 판단해 보고 조사하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민들 과지역, 국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공약 이행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약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음 여름학기 봉사에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나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완벽하게 이수하고 싶다.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권 ○ 훈

이번 2025년도 봄학기를 통해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기대했던 것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다. 평소 법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쟁점의 판결문들을 숫하게 보았지만, 이는 대부분 3심의 대법원의 판결 태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어서 1심부터 3심까지의 자세한 부분을 제대로 분석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판결문의 사건개요나 쟁점,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건의 관계자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검사, 판사의 인적사항까지도 검토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니, 학업과 함께 병행하다보니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 판결문 리서치는 하나의 판결문 밖에 검토하지 못했다. 판결문 리서치 대신, 번역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다. 말레이시아, 니제르. 나이지리아를 거쳐 파키스탄의 헌법까지 네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면서 느낀 것은 헌법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개괄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구조, 제도와도 비슷한 점도 있는 반면, 많이 다른 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파키스탄의 헌법의 번역 중에서 파키스탄의 지역 종교에 대한 언급이 헌법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파키스탄이 위치한 중동에서 유명하고 지역 전체가 믿는 종교인 무슬림 등이 있고,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는 종교의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잦은 곳이다 보니 종교와 관련한 언급이 많고, 상세한 것 같았다.

다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기대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할 때에, 판결의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련 인물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검사, 판사의 인물 정보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리서치 했던 판결문은 23년도의 판결문이라 다들 그 당시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물과 사건 관련한 정보가 판결문을 제외하면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내가 선정한 판결문의 쟁점이 분명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었는데도, 뉴스나 인터넷 기사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이 사건보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의 판결에 대한 기사였고, 이마저도 법조인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발행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느낀 것은 일반인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러한 판결의 쟁점이나, 내용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필수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에서는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정확히 공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 특히 금천군수의 공약이행률에 대해 조사할 때, 분명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이행률을 검토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있었고, 공약이행률을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도 있었으나, 정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작은 자자체다보니 뉴스 기사도 찾기 힘들어서 공약에 관해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몇 있었다. 그리고 처음 공약한 것과 달리, 축소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경 혹은 다른 공약과의 통폐합하여 진행된 사업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도 –같은 이름의 사업이 아니라서- 더욱이 공약이행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주시장의 경우엔 그래도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공약의 이름이나 내용의 변경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천군수의 경우엔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져 실망이 컸다.

이번 학기, 봉사활동과 학업을 함께 병행하여서 그런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재택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편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법률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불편한 점들을 체감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다. 다음 학기인 여름학기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기에 더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숙명여자대학교　길 ○ 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온라인 봉사활동은 저에게 법학도로서의 사고를 한층 성숙시키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았던 판결 리서치와 외국법 번역 활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법률 정보의 질적 향상과 국민 법감정의 고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깊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 법률이 사회의 공공재로서 모든 시민에게 쉽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그러한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온라인 봉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제 입법이나 법률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동기를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분야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 주요 판결을 선별하여 리서치하고, 사안의 개요, 판결 이유, 쟁점, 사회적 함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문의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법리 전개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활동을 거듭할수록 판례 분석의 틀과 핵심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현실의 접점을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기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향후 입법 개선에 줄 수 있는 시사점까지 성찰하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텍스트의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법이 사회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주목하는 법학도의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민사, 형사, 행정, 헌법 분야의 판결—를 폭넓게 다루면서 법률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도 자연스레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판결을 리서치하면서 동시대적 감각을 반영한 법학적 사고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활동은 외국법 번역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독일 등의 법령과 판례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용어의 정확한 대응어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단순한 언어적 번역을 넘어 해당 국가의 법체계와 한국 법체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번역문에 반영하는 섬세함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소개하는 작업은, 한국 법제의 발전과 비교법적 시각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이나 일본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 사례를 번역하면서,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차이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법제의 위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이번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법률정보의 질적 향상이 결국 시민들의 법 감수성과 법적 권리 실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한 리서치와 번역 작업이 직접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의 각종 보고서, 입법 청원자료, 정책 제언서에 반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공의 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협업의 가능성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비대면 협업 능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이 법률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법학도로서 공부할 때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은 단순한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깊이 새겼기에, 앞으로의 법학 연구와 실무에서도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률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중앙대학교　김 ○ 민

2024년에 처음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회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접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이번에 기회가 되어 2025년 춘계 활동에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법과 정치,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활동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법정치의식조사, 헌법번역 봉사, 판결문 리서치,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총 네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정치의식조사는 총 2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시민의 법과 정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시민들이 법률 제도와 정치 구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를 넘어, 각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법감정과 정치 불신, 제도에 대한 기대 등을 보다 생생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에 대한 신뢰와 현실과의 괴리를 엿보면서, 법률제도 개선과 공공의식 함양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시행되는 대선에 관련하여서도 시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중략>

세 번째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서는 대법원 2021다308030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이 항공사로부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부당하게 이득 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약관에 따라 소멸되었더라도, 고객이 제공한 항공권 구매 대가에 포함된 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고, 대법원은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금전적 가치와는 별개로 특정 조건에 따른 무상 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과 약관의 구속력, 소비자 보호의 범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단순히 판결 요지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고, 그 법리 전개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해당 판결을 읽다 보니, 일상생활의 경험이 법적 쟁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생활과 법 해석 간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법학적 사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장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된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정 자료, 언론 보도, 구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 행정의 제약,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공약 이행의 질과 양을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과 시민의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활동이 다소 생소하여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공한 매뉴얼과 피드백 덕분에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는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실제 재판 과정을 직접 보고 싶고, 판결문 리서치도 더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며 제 법학적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 서강대학교 김 ○ 경

2025법정치의식조사 및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활동 소감문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2025법정치의식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 그리고 시민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5법정치의식조사'는 청년세대의 법의식과 정치의식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래 대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특히 20대 여성들이 기존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법과 정치가 멀게만 느껴졌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공약 이행률 조사에서는 강원도지사 김진태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현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행률도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공약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회복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오가는 논리와 절차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의 긴장감과, 법조인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법의 무게와 공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 그리고 시민의식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법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고 싶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활동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지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춘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강의실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접하던 법률이 실제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습니다.

봉사활동의 주요 내용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상담 지원과 법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었습니다. 시민들 중 다수는 작은 분쟁이나 행정 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계셨고, 우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가 그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모습을 보며 법률지식의 공공성과 실천적 의미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 분석 및 번역 봉사활동은 평소 제가 간과하고 있던 법언어의 공공성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주요 판례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법률용어의 함의, 해당 판결의 정책적·사회적 의미까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텍스트는 단순한 기술문서가 아니라 해석의 결과물이자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외국인을 위한 법률정보 접근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법률소비자 보호라는 큰 그림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 리서치 및 분석 활동은 제게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법리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단순히 판결 결과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법원의 논증 구조를 정리하고, 다양한 학설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법률가의 언어'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논증의 정교함과 정의에 대한 고민이 담긴 해석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상계권, 부인권과 같은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의 복합 주제들을 추적하면서, 저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히는 법학 연구의 매력을 느꼈고, 장차 이러한 분석 능력을 사회공익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법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법학도로 거듭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제가 추구하는 법조인의 가치인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고, 이는 제 진로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법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법 실천가가 되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단지 법률 지식을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어떻게 나누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실현하는 길에 꾸준히 서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김 ○ 찬

1.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

저는 평소 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우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법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고, 실무적인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이번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봉사활동 중 느낀 점 및 인상 깊었던 순간

법정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판을 직접 방청하는 경험은 매우 인상 깊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기사로만 접했던 법정의 분위기를 실제로 마주하니, 그 엄숙함과 긴장감이 보다 잘 느껴졌습니다. 특히, 판사님께서 판결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논리 정연한 설명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이번 방청 경험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법을 공부하고 다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봉사활동을 통하여 배운점 및 앞으로의 다짐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하여 법적 문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구성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따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요약 작업을 넘어, 법률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매우 힘든 일이 었습니다. 작은 표현 하나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을 세심하게 다듬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모니터링 봉사를 통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단순한 사실 판단을 넘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당사자 간의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배웠습니다. 판사와 변호인, 검사의 역할을 각각 관찰하면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언과 행동이 정의 실현과 직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법조인이 가져야 할 전문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감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제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의미 있는 계기였고,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정진하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영

2025년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첫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학교에서의 법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것 외에는 능동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과 관련된 시사 이슈들을 찾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내외 사법제도와 법령 등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헌법 재판소 규칙을 번역하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의 법 제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일법을 찾아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기에,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번역 봉사 경험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독일 헌법 재판소 규칙을 번역하기에 앞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종교, 정치 그리고 법과 관련한 배경지식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결부하여 독일 기본법(독일의 헌법) 제정 과정을 찾아보고 이해하니 독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독일어 실력이 아주 좋지는 못해서 독일 헌법 재판소 규칙 중 1에서 4페이지까지만 번역하였는데, 번역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뜻과 단순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해당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독일에서는 이 단어를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맥락 속에 존재하는 독일 사법 체계는 어떠한지 등을 직접 찾아보면서 번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와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책을 보고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번역 봉사를 통해서 진정한 공부는 내가 궁금한 점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 봉사를 통해 독일에 대한 애정, 법에 대한 애정도 키워나갔지만, 근본적으로 진정한 공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2025년 5월 5일에서 2025년 5월 10일 사이의 사설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비교분석한 사설은 10대 일간지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였습니다. 평소 저는 나름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고, 유명 보수 성향 언론지와 유명 진보 성향의 언론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10대 중합 종합 일간지의 사설을 모두 읽어보고 언론사는 보수와 진보로 생각보다 쉽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언론사를 고를 때는 마냥 유명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언론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느 언론사가 저의 의견과 일치하는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굉장한 분량의 사설을 읽으면서 논리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도 길렀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논거들을 빠르게 파악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어려웠던 사설들 간의 비교를 언론모니터링 후반부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들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정도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봉사를 마친 지금 되돌아보면,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열심히 봉사해 소중한 경험을 얻어갈 예정입니다.

○ 고려대학교 김 ○ 미

2024년,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은 처음엔 그저 소극적인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제가 몰랐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은 제가 법원이라는 공간에 처음 발을 들이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법원은 일반인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방청하면서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고, 법정 안에서 흐르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에 법조인을 꿈꾸는 저에게 이 경험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내가 만들고 싶은 정의로운 재판은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정치의식조사 활동을 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견해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는 처음에는 생소했던 판결문 검색과 재판 당사자 식별 방법, 그리고 판결문 요약 등의 기술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심, 2심, 3심의 재판 구조와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뉴스에서만 접하던 법률 사건들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정보 정리를 넘어, 법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정모니터링과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실제로 공약을 지키는지, 정치가 단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고민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김 ○ 진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자체가 처음이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는데, 차근차근 활동들을 해나가니 어느새 봉사활동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공이 법이어서 평소 법조문이나 판례를 많이 접하는데, 정작 재판을 방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글만 보는 공부보다는 제가 직접 법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 경험에 목말라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늘 꿈꿔왔던 것을 해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저 경험만을 위해서도 재판 방청을 할 수 있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저에게는 문턱이 높은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이 봉사활동을 핑계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가보니 위압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상상했던 것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재판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분들도 종종 방청하러 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언론에서 비추어지던 법은 늘 약자의 편이 아닌 것처럼만 느껴졌는데, 방청을 하다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을 정의롭게 하는 것은 그저 문언으로만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공정하게사건을 보고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법관과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와 변호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법관과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판례를 통해 결과만 접해오던 저에게는 그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경험이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껏 그들의 존재를 느껴보지 못했는데, 방청을 다녀온 후 판례 리

서치 활동을 하며 그 뒤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는 그들의 노고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청 시간을 형사사건에 할애했는데, 형사소송법을 배우며 익혔던 법 개념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보니 법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사사건도 작은 사건들을 위주로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아는 법 개념들이 나와 공부한 것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보게 되어 신기했고 덕분에 즐겁게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은 비록 많이 해보진 못해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건을 방청해야지 하는 저만의 다짐을 했습니다.

<중략>법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러한 정의 관념은 응보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까, 그렇다면 응보의 관점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과연 옳은 것일까 등의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법, 특히 형법은 단순히응보의 관점만이 아니라 교화나 기타 사회적 기능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응보 목적으로만무작정 법을 강하게 개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보니 결국 법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회에 맞게,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법조인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다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법조인의 가치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소감문을 적고 나니 새삼 이번 봉사활동을 하며 깨달은 것이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한 층 더 성장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나 자신을 다듬어 사회에 작은 부분만큼이라도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세대학교　김 ○ 석

2025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두 가지 필수활동(설문조사,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과 두 번의 판결문 리서치, 언론모니터링(10대 일간지 사설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 활동을 중심으로 소감을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형사사건이었던 2020도12920 판결과 민사사건이었던 2024므11526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0도 12920 판결의 경우,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헤딩 판결을 통해서는 만약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판례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내에서 체벌이 금지된 이래로 교사의 훈육, 교육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판례에서 교사의 훈육이나 교육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기준과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던 2024므1152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 사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유지, 존속하는 것도 법의 역할이지만, 반대로 결혼을 끝내는 행위 역시나 법의 역할임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이혼이라는 행위를 떠나 재산분할대상 선정, 재산분할가액 산정, 위자료 산정, 양육비 산정 등 이혼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산과 관련된 현실적인 금액 산정 문제 역시 법과 재판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양육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자녀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재판 과정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나 상처 또한 추가적으로 다뤄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은 5월 19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10대 일간지 사설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설의 경우, 언론사의 논조가 그대로 담겨 있기에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작성된 사설이더라도 언론마다 초점을 두고 다루는 내용과 결론이 각기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SPC 빵공장 끼임 사고의 경우, 어떤 언론은 해당 기업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다른 언론은 관련된 법안의 본질과 실태까지, 보다 넓은 차원에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사설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의 범위 역시 각 언론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간은 대선이 주된 이슈였기에 사설 역시 대선이나 정치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세계,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이슈는 대선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중략>

이번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고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활동도 있었기에 특히 의미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김 ○ 수

지난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재판 절차를 방청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활동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특히 법정모니터링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몸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민·형사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판사의 심문 태도와 검사 및 변호인의 변론 과정을 눈으로 보니, 법의 '절차적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성과 세심함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단순히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비교·분석하면서 쟁점별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니, 법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다른 후기에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봉사로 추천된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주변 학생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치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법률 소비자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률 접근성 강화와 정치 진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역량을 몸에 익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문화 확산과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김 ○ 민

1.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

동아리 부원들 및 과 지인들을 상대로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동아리 부원들의 경우, 동아리의 특성 상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치중된 설문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되었으나, 생각보다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설문 문항을 미리 읽어보았는데,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념전쟁/개헌할 때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 등)들이 있었기에 정치, 사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가 미처 의식하지는 못하였으나, 헌법과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또한 설문조사의 답변 통계량을 내면서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이 다르며, 내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이 어쩌면 상대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같은 현상을 다르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존재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질문을 하며 생각을 교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2.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날에는 미리 공약도 찾아 읽고,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민선8시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며 부끄럽게도 사후적인 공

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번에 인구수가 적은 한 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지구 개발과 같이 비교적 큰 업무에서부터, 경로당 설치나 중학교 운동장 시설 개선과 같이 사소해보이는 업무까지, 지방자치의 큰 축을 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방인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의료시설 부족, 도로정비의 필요성, 육지와 섬을 잇는 대중교통의 필요성, 지역 소멸 등의 문제들이 실제 지방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의제인 점에 비해 전국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3. 언론모니터링-이슈분석

마지막으로 언론모니터링 이슈분석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언론사와 보수적인 언론사 두 개를 선정하여 동일한 이슈에 대한 보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내가 선정한 주제는 진행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 위주의 보도가 어울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뚜렷한 결과를 내기 힘들었다. 따라서 최대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주관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으며, 약 100일에 가까운 기사를 분석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작은 차이점들이 쌓인다면 두 신문사의 보도경향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 대학생 법의식 설문조사의 경우, 해당 설문조사에 적극 임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각각 뜯어보며 현재 정치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볼 수 있었고,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분석을 통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역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언론모니터링을 통해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 고려대학교　김 ○ 연

법률연맹 2025년도 춘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진행한 활동은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네 가지였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필수과제였던 법정치의식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의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인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정치와 사법의 관계, 사법에서의 공정성 등의 주제가 인상 깊었다.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해 다룬 질문들, 특히 지방검사의 선출과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 하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해외의 사법제도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10대 일간지 사설 분석을 진행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등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견해차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전에는 막연히 진보적인 언론사와 보수적인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다고만 했다면, 이번 활동을 통해 개별 언론사의 견해차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었다. 언론사가 다루는 주제 뿐 아니라 다루지 않는 주제를 통해서도 견해차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요컨대 신안산선 사고의 경우, 이를 다루는 언론은 전반적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이를 다루지 않는 언론은 다른 주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계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며 위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일으킨 주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민주당 등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다. 어떠한 이전에 비하면 주요 언론사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세상을 보는 주요한 창으로 작동하는 만큼,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 언론이 많다면, 이것이 사회의 분열을 계속하여 일으키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의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수과제인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도 점검활동을 통해 분석한 지자체장은 최경식(전라북도 김제시)과 정성주(전라북도 김제시)였다. 두 지역에서 제시된 공약과 이행도를 조사하며, 지방이 맞이한 문제 – 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주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도하는 신문기사보다는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보며, 지방자치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번 춘계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정치, 사법,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보람찼다. 하계 봉사활동에는 판결문 분석, 해외 자료 번역, 재판 참여 등 사법과 관련된 활동을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 ○ 은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판결문리서치나 공약 분석은 처음 해 보는 활동이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사고력과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기르고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치의식 조사에서는 주변 친구들을 설문 대상으로 하여 같은 세대의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친구들과 법원, 재판, 사법부의 역할 등에 대해평소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알게 되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지방 민주주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가되었습니다. 두 개 지자체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면서,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공약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약실천위원회나 시민참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공약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약 관리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인 제가 이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공약의 경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되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약 변경이 빈번해질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치에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속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습니다. 총 네 개의 판결문을 1심부터 3심까지 읽고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 기준과 법리 해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법적 배경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관련 판결문을 처음 접했을 때, 보조참가인이나 사립대학 교원이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하지 못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행정소송 특유의 절차와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판결문 자체의 법리나 판단 이유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법적 체계와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관련 법령까지 추가적으로 학습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

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1심부터 3심까지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도 상급심에서 법리 해석이 변경된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왜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러웠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급심에서 제시하는 법리 변경의 이유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3심제도가 단순한 재심이 아닌,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법 해석을 위한 체계적인 장치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중략>

봉사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과 책임 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며 법률 문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 근거를 검토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하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우리의일상과 얼마나 긴밀히 맞닿아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활동마다 친절히 방향을 잡아 주시고 활동 끝에서는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신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봉사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한 걸음씩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 동국대학교 김 ○ 혜

전적대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보람을 느꼈던 나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사회봉사 과목을 찾았다. 그리고 개중에 법률 관련된 봉사가 눈에 띄어 찾아보게 되었다. 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언론 모니터링이나 법정 모니터링이라는 생소한 봉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다. 물론 선택 과제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 했지만, 필수 과제에서는 주제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과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고, 까다롭게 느껴졌다. 인정되는 봉사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다. 사실 기사를 하나하나 스크랩하고 정보를 요약하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든다. 하지만 그에 비해 인정되는 봉사시간은 좀 많이 부족한 듯하다.

다만 얻어가는 것도 있었다. 생각보다 어떤 정치 성향을 대변한다고 불리는 언론들의 기사가 '생각보다는' 극단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는 기사들은 이목을 끌어야하기 때문인지 상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기까지 보이는 기사들이 많았다. 하지만 언론사에서 기사 하나하나를 스크랩 해보니 의외로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도 많았다. 논외로 조선일보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논조가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 또한 의외였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 비율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높아질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중략>

법정치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일단 스스로도 설문조사를 하며 모르는 부분이 많아 검색을 해보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조사를 요구한 친구들에게도 이거 너무 어렵다며 불평을 많이 들었다. 법정치 설문조사의 난이도가 쉬워지고 간단해진다면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 흥미로 시작했던 봉사였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게감 있었던 봉사였다. 다음에 이 사회봉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다양한 봉사를 얕게 하기보다는 한 봉사만을 선정해 깊게 파고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이 들었다. 또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가벼운 활동을 모든 대학생들이 진행한다면 언론 및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김 ○ 은

나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다. 활동 내용을 찾아보니 판결문 리서치, 해외법률 번역, 법정 모니터링 등 법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활동들이었고, 흥미가 생겨서 바로 지원하여 25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2025 법·정치 인식 설문조사였다.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만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더 유익했다. 내 주변 대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말 인상 깊은 활동이었다.

설문조사 활동을 끝내고 나서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다. 모니터링시트에 기록하며 재판을 보니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나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을 볼 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다. 또, 재판 당사자들의 태도를 관찰하다 보니 나중에 내가 당사자 또는 법조인으로서 법정에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 다음으로 참여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활동이었다. 내가 유독 긴 판결문을 선택한 탓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30쪽을 넘어가는 판결문에 압도되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결국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하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것이 후회될 정도로 재미있었다. 애초에 흥미로운 판결문을 선택해서 긴 분량이었던 거라, 막상 시작하고 나서는 진도가 잘 나갔다. 판결문을 공부하는 활동은 꽤 해봤지만,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기사까지 찾아보며 공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어려웠고 그만큼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판결문 리서치를 더 신청해서 여유를 가지고 깊게 분석하며 공부해보고 싶다.<중략>

마지막으로 참여한 활동은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이었다. 지자체장의공약 이행률을 확인하는 활동은 아예 처음이라 새로웠다.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이렇게 잘 정리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약이행률도 조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로운 것과 별개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을 정말 많이 썼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활동이니 내가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활동이라 좋았다.유독 바빴던 한 학기를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과 함께하니 버겁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찼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봉사활동의 가치 그 이상으로 법학에 대한 나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정말 귀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동국대학교 김 ○ 원

이번학기에는 다른 일정들과 대외활동들이 겹쳐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틈틈이 법률소비자 연맹 주관의 봉사에 참여하고자 애썼다. 뿌듯함을 느꼈다.

기본적인 교육참여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큰 의미를 느끼진 못했으나 후보들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우선 내 거주지에 해당하지 않는 정치인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내가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이 아니어서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반면 조사를 실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후보들의 공약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느꼈다. 또 표면적으로 이행된 것 같으나 실상은 아직 이행중이거나 완료계획에 대한 입장이 표명된 것이 전부였다. 나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후보들이 갖가지 핑계들로 공약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안타깝다.<중략>내가 오래 살아온 수원의 시장은 과연 페북이나 각종 sns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진짜 모든 공약을 이행했는지 말이다. 앞으로 선거에 임할 때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여당과 야당에서 공약이행률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활동울 계기로 그동안의 내 선거활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양심을 팔고 나랏일에 임하는 사람들이 각 정당에서 사라졌음 하는 바람이다. 나어가 공약을 곧이곧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대체사업이 이뤄질 경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활동을 보여준다면, 보다 해당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의와 책임감에 대해 그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주는 활동이었다.

○ 고려대학교 도 ○ 수

법률소비자연맹의 봄학기 봉사활동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법률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그를 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던 중의 일이었다. 본래 법조

인이란 직업군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으나, 대학교 졸업을 목전에 두고 사회 경험을 쌓으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법이라는 사회규범이 결코 나의 일상과 멀리 있을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 관련 진로에 주목하게 되었던 계기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봉사활동에의 참가는 관련 분야 경험을 쌓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막 관심을 갖고 무작정 뛰어든 탓에 지나치게 무지한 스스로에게 일정량의 배경지식을 쌓아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간단히 말하면 적성을 알고 싶었다. 다종다양한 봉사활동 종류 중 무엇을 얼마나 할지 선정하는 데는 그 잣대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이번 학기 나는 사법 감시를 위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과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통용되는 법률 용어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었고, 판결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근거 삼아 내려지는 것인지도 대강은 파악할 수 있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했던 '이전 판례'의 법적 무게도 판결문을 여럿 읽으면서 실감하였다.

법관으로서 – 많고 많은 법조인 중실제로 판결을 만드는 직군에서 일하게 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 판단 하나 하나를 내리고 문서화할 때 얼마나 많은 분야의 복합적 파장을 고려하고 따라서 거듭 신중해져야 하는지 그 일각이나마 접해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큰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미 내려진 판례들을 살피고 분석하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 이후에는 살아 숨쉬는 법정의 공기가 궁금해졌다. 법정에 직접 방문하여 여러 재판을 방청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신청한 것은 그런 의도에서였다. 기존까지 갖고 있던 법정이라는 장소에 대한통념은 거지반 국민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극악한 형사사건의 재판 혹은 국가의 운영 자체를 뒤흔들게 될 큰 시사적 이슈를 다루는 헌법재판소 판결 낭독을 보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일상적이고 규모가 작은, 살아가면서 내가 당사자 자리에 놓일 확률이 보다 높은 부류의 사건들을 다루는 재판 방청은 본 봉사활동을 계기로 처음 겪어 본 셈이다. 명쾌하게 느낀 점도 물론 많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막연히만 갖고 있던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의 실정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감상을 품은 것이리라 생각한다. 이를 운이 좋다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사법과 그를 수행하거나 맞물려 돌아가는 각종 기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감회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격동의 시기에 활동에 참여하며 많은 것들을 느꼈다. 얻어가는 것이 무척 많은 만큼, 추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금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그때는 이번에 해 보지 못한 다른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다시 견문을 넓힐 기회로 삼을 심산이다.

○ 성균관대학교　민 ○ 라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며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법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전공에서 법과목을 추가해 들으며 이론적인 부분은 미약하게나마 알고 있었으나, 실생활에서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경험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봄학기 봉사활동은 이런 제게 현실적인 공부를 도와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법의 공공성과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제게 개인적으로 배정된 여러 나라의 헌법의 일부분을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장 번역 차원을 넘어, 해당 국가의 정치 체제, 문화, 역사적 맥락을 먼저 검토하고 법률적 번역을 고려해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즉, 단순 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한국어로 얼마나 적절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피드백해주신 도움 덕분에 빠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자주 생각해 볼 일이 없었던 낯선 국가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는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헌법 내용을 번역하며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중략>필수 활동으로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에 있어 응답자의 전공, 직업, 나이,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답변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설문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응답자들과 개인적으로 설문조사 질문에 관련된 대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견해를 이해해보려는 시간도 뜻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처음 해보는 형식의 조사에 생각보다 그 분량이 많아보여서 시작단계에선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발표 공약과 이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최신 언론 보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자료, 관련 예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했으며 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장 별로 최소 50개가 넘었습니다. 기왕 시간과 정성을 들여 조사를 해야 한다면 내가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감사하게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25 정보공개 평가 결과, 두 분의 공약이행률은 높은 편이으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지부진해진 공약에 대한 업데이트가 뜸한 부분은 아쉬웠지만, 각 지자체별로 강점을 뽀족하게 보이는 다른 구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약들을 새로 알아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려 시작한 봉사활동에서 오히려 저의 더 큰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해야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어지는 여름학기에서도 더 다양한 활동으로 공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동국대학교　민 ○ 연

이번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은 단순한 행정 보조나 실적 쌓기를 넘어, 제가 법과 정치의 실제적 작동 방식을 체감하고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번역과 조사라는 활동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어떻게 제도 속에 반영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는지를 실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 헌법 번역 봉사 – 세계 각국 헌법을 통해 본 인권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얼굴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모리셔스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작업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제도, 시민의 권리 보장 체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었습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의 헌법에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긴장과 균형이 반영되어 있었고, 미얀마 헌법에서는 군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팔 헌법은 비교적 최근 제정된 만큼,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돋보였으며, 모리셔스 헌법은 영국식 법체계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자국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역 봉사는 단순한 문장 해석을 넘어, 그 나라 국민이 어떤 제도 아래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그저 법률의 최상위 규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시민의 삶 그 자체라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법이 정치적·문화적 맥락과 얼마나 밀접히 맞물려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2.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 지역 정치의 현실을 마주하다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는 작업은 저에게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약 달성률을 수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약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중략>

또한, 자료를 수집하고 뉴스 기사, 지자체 공식 문서, 보도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공정보 접근의 불균형과 정보 공개의 현실적인 한계도 목격했습니다. 이는 곧 '시민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법적 감수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3. 나에게 남은 변화와 다짐

이번 봉사활동은 법과 정치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국제적 시각과 지역적 현실을 동시에 접하며, 법률이 국민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구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번역과 조사라는 실무적인 활동을 통해 법률 문서의 정밀성과 정책평가의 객관성이라는 두 가지 시각을 균형 있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단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감시자이자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더 나아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민 ○ 선

2025년 봄학기에 본 봉사자는 나미비아 헌법 번역, 나이지리아 헌법 번역, 니카과라 헌법 번역, 미얀마 헌법 번역으로 총 4개국 헌법의 번역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김성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조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공약 이행률 조사를 마쳤다. 총 32시간의 봉사활동(오리엔테이션 2시간, 각국 헌법 번역 20시간, 필수활동 10시간)을 마치며 봉사활동을 내용과 소감을 정리한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 활동을 통해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총체로서의 헌법을 분석하고, 한국이 그 국가를 더 정확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특히 지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시 꾸준히 번역 봉사를 수행해왔는데, 주로 미국 각 주 헌법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했다. 그와 달리 아번 학기에는 아시아의 미얀마, 중앙아메리카의 니카과라,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헌법을 번역했다. 지난 학기 봉사까지 주를 이루었던 국가들의 헌법 분석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의 기틀이 되었던 독일, 미국, 일본의 법제와 유사한 서구권 국가들의 법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 법률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번 학기 봉사활동은 다른 대륙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함으로써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지수가 한국보다 낮거나, 과거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등 비교하고 대조하며 헌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헌법이 비추는 각 국가의 정치적 현실을 성찰하며 반면교사하거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 시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두 구청장들의 공약은 잘 실천된 경우도 많았으나,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두 구청장 모두 총합계 120에서 130점 내외의 점수를 보였고, 주로 지역구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특히 주거)와 관련된 공약의 이행률은 비교적 높았던 반면, 문화, 복지 부문의 공약 이행률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공약이 아닌, 유권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을 세울 수 있도록 공약 이행률 조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의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 서강대학교 민 ○ 기

처음이어서 어렵고 처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던 봄학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조인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이번에 활동한 2025 봄학기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해당 봉사활동에는 정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유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수행한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실제 판례를 검색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판례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속에서 쓰이는 논리와 언어들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제 내적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저작권, 성폭력, 임대차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쌓으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선택 활동이 법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키우는 활동이었다면 필수활동의 경우우리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정치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필수활동1 대학생법정치의식 설문조사의 경우 한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2030세대들의 법정치의식의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파악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필수활동2 공약이행률조사의 경우 평소라면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하지만 넘어가서는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성을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비판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활동이었습니다.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이 봉사활동으로 인해 다가가기 어려웠던 '법' 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친해지게 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연세대학교 박 ○ 우

이번 봄학기 법률봉사활동은 어느덧 세 번째로 참가하는 활동이지만, 지금까지 참여했던 어느 활동보다도 보람있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인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변하였고 약속한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었기에 그렇다.

우선 OT 과정에서는 저번 학기와 같이 보내주신 자료를 읽고 간단한 정답을 맞추는 회신문을 작성하였다. 주어진 자료들을 읽으며 민주사회에서 법의 중요성과 봉사활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다. 단순히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통보받는 것이 아닌, 하나의 대학 교양 수업을 듣는 느낌이라 더 의미있었다. 이후 이번 겨울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인 법정 모니터링과 선택 활동인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여 봉사를 이어갔다.

다음으로 4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신청하여 진행했는데 내가 맡은 판례는 <양육비>, <무고>, <인지세부과처분취소>과 <행정처분결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가정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골고루 다루어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다툼들에 대한 내용과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판례는 <양육비> 판례였는데 소송당사자들의 사실관계와 1심, 2심 판결문을 번갈아 읽으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 전 공동으로 얻은 재산인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이를 판결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1심과 2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3심제의 최종법원이라는 기능을 넘어 1심과 2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를 하는 동안 같은 판결문을 적게는 3번, 많게는 5, 6번 이상 읽으며 판결문을 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야 원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논거, 이를 판단하는 법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장들의 정책 이행률과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중 현 시흥시장인 임병택 시장의 공약과 이행사항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느꼈다. 임병택 시장은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며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는 점에선 좋은 평가를 내릴만하나, 공약들 중 현재 추진중이나 과연 완성에 이를 수 있을까하는 공약들이 많이 보였다. 임병택 시장은 공약으로 운동장, 문화센터, 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못해도 1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거기에 더하여 현재 많은 주요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실패사례로 언급하는 월곶역세권 산업단지 유치, 시흥시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에도 이미 많은 재원이 들어간 상황이다. 과연 국가나 경기도의 지원을 받더라도 시흥시의 재원으로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히 이러한 공약들의 경우 현재로서는 공약이행이 가능할지 평가하는 것이 비전문가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힘들기에 더욱 걱정스럽다. 한편 수원시장의 경우 반대로 지키기 어려운 남발성 공약들은 상대적으로 자제하였으나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훌륭한 지자체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제3자의 입장에서 재정건

전성을 토대로 두 지자체장을 평가한다면 시흥시장보단 수원시장의 행보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으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세우고 진행 중인 시흥시장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된다. 결국 남발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나 유권자의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라면, 시의 재정상황과 재정자립도를 매년 감사원을 통해 감사하고, 이를 평범한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보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연세대학교 박 ○ 빈

이제는 법률연맹의 봉사활동에 많이 익숙해져 편안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신청하였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번역봉사와 필수활동인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 위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같은 봉사활동이라도 이전 학기들과 달라진 부분들도 꽤 있었고, 또 나로서도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번역 봉사와 함께 수행한 필수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및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또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보람찬 활동들이었다.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하며 주변 지인 및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돌렸고 이를 취합하였다. 감사하게도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준 친구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이지만 법정치의식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가 상당한 친구들도 더러 있었다. 아무래도 각자가 살아오고, 현재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성격도 전부 다를 테니 자연스러운 결과일 테고, 이럴수록 서로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뿐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더불어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지금껏 해왔던 봉사활동 중 가장 힘든 편이었다. 일전에 했던, 그저 선거공보에 나와 있는 공약을 그대로 붙여놓고, 요약하여 기재하는 의정모니터링 활동과는 달리 몇 십 개에서 백 몇 십 개에 달하는 공약들 하나 하나당 이행율을 분석하고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하는 활동이라 솔직히 활동 초반에는 막막하고 힘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느끼고 배운 것도 많은 보람 있는 활동이었다.

해당 활동을 통하여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하고, 열심히 발 벗고 뛰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주려 하는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과, 현실성이 부족하고 오직 포퓰리즘에 입각한 달콤한 공약으로 주민들을 구슬려 마음을 산 뒤 기본적인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전부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나 후자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공약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행되지도, 아니 아예 시작조차도 되지 않았음에도 기사 자료에는 마치 순조롭게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처럼 나온 것도 있어 몇몇 언론의 진실성마저 의심해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며 느낀 것은, 단순히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이 선호하는 당의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현실성 없는 달콤한 공약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후보자의 됨됨이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속지 않으려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들에게 만연한, 정치인은 대부분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인식과는 달리 정말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애정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도 발견할 수 있어 마음 한 켠이 훈훈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나아가 국민을 위해 선거를 통하여 옥석을 가려내는 국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모로 깨닫게 해 준 활동이었다.

이렇듯 이번 학기에도 수고를 들여 각종 봉사활동들을 시행하며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을 통하여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학기에는 번역 봉사 최대 인정시간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보다 많은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며 그 국가에 대해 지식을 쌓고 싶었는데 이 점만큼은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공약이행률조사는 인정되는 활동시간에 비해 자료를 찾고 공약을 분석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분명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큰 보람을 느낀 활동들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기에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이번 학기 봉사활동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도 기존에 꾸준히 해왔던 번역봉사와 더불어 언론모니터링 또는 판결문리서치와 같은 새로운 활동들도 해보고 싶다.

○ 동국대학교 박 ○ 아

2025년도 봄학기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봉사 하게 되었다. 처음엔 졸업 학점이 1점 모자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사회봉사라는 교과목을 발견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 중에서도 작곡 능력이 자신 있어서 법률 노래를 만드는 역할에 지원했다. 그러나 막상 작곡 TO가 없어서 다른 업무를 찾아 나서야 했다.

먼저 헌법 번역 업무를 맡게 되었다. 살아생전 번역을, 그것도 헌법을 번역 해 본 일은 없었기에 정말 막막했다.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헌법부터 공부해야 했고, 덕분에 내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헌법 민법 형법 분류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헌법 체계가 일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에 놀랐고, 세계는 넓은 동시에 또한 좁다는 것도 느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여럿 느꼈다. 부정선거의혹, 계엄, 의대정원 등등 여러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보며 성숙한 의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며 더 강해졌다.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분량의 연금개혁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청년과 중년 노년층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나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피부로 와닿게 되는 계기였다.

또한 지자체 공약 이행 조사를 하며 많이 배웠다. 지자체라는 것이 사실 뭔지 잘 몰랐다. 서울 시장 오세훈은 알아도 지자체가 뭔지는 몰랐다니. 그들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관심 없이 지내왔었다. 그렇게 지방자치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의 공약에 대해 직접 조사하면서 세상에 여러 이권이 겹쳐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지자체 선거때 여러 가지 선심 공약이 남발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 지원 할 적에는 그저 1학점을 위해 귀찮은 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는 물론 스스로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를 앞두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진출할 사회에 대해 더 깊이있는 이해를 하게 해 주었음에 감사한다. 앞으로 또 이곳에서 직접 봉사를 하게 될 일은 없을 듯 싶지만, 사회의 일원, 또 소비자의 일원으로써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을 응원 할 것이다.

○ 한림대학교 박 ○ 애

이번이 두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법학을 전공한 제게도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는 제가 4년간 배워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으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배운 법은 이렇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에 적혀있는 사회는 제가 배운 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갖고 판결문을 리서치했고, 설문지를 돌렸으며 민선 8기의 공약 이행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법정치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남들에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누군가의 시선에는 우물 안 개구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이란 자신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의 최선에 최선을 더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신념을 나타내는 것 이였습니

다. 하지만 공약 이행률을 조사해보니 넘버링 되어있는 공약 하나하나를 검색을 하며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공약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려고 이런 공약을 걸고, 이행도 안 하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중략>제가 배운 법은 여전히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법은 국민을 이해시킬 준비가 되어있지만 그 법을 세상에 적용시키는 법관들은 아직 국민에게 법을 설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법관이 작성하는 문장은 귀로 들어도 이해가 될 정도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작성되는 판결문은 눈으로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어떤 판결문은 하루 종일 읽어야 겨우 이해되는 판결문도 있었습니다.

법을 전공한 저도 하루동일 읽어야 겨우 사건의 흐름을 파악했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들은 도대체 그 판결문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그들의 사건이 어떤 법리를 적용하여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나중에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절대 권력이 될 수 없음에도 판결문을 통해 법을 안다는 것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느낌에 분노를 느꼈고 나중에는 불쾌감도 조금은 느꼈습니다.

법을 전공한 이유는 법이 세상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야 하다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라는 점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 망설임 없이 법학을 전공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법을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가진 의지인 '법은 절대 힘든 사람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를 느끼게 해주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법을 찾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법정에서 힘든 사람들을 대신해 법으로 싸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은 절대 힘든 사람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라는 법의 의지를 잊지 않고, 법을 안다고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기에 법을 모르는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귀로 들어도 이해가능한 문장을 구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대학교 박 ○ 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법률과 사회의 관계를 실제로 체험하며, 나의 시야를 넓히고 실무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이번 활동에서 헌법 번역 봉사와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며, 법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먼저, 헌법 번역 봉사는 단순한 문서 번역을 넘어, 다른 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맡은 헌법은 특정 국가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충실히 번역하기 위해 관련 법제와 제도를 조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법에 녹아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고,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의 맥락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이를 통해 국제법과 비교법적 관점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치·행정 영역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각 의원의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었다. 특히, 공약의 이행 여부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국민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률적 분석력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고민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공약이 단순히 발표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번역 과정에서는 낯선 법률 용어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공약 이행률 조사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며 법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점차 분석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법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과 행정의 역할을 고민하며, 책임 있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 부산대학교 박 ○ 연

저는 2025년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법·정치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제 관심사에 따라 봉사활동 유형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활동 모두 개인적인법과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수 있고, 법률적 관점에서 일반 시민의 알 권리와 정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더 뜻 깊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참여한 봉사활동은 '헌법 번역 봉사'입니다. 각국의 헌법은 체계와 용어가 상이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어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법적 맥락과 의미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연방제 또는 군사정부의 정치체계를 반영하고 있어, 번역 전 해당 국가의 정치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조사하고 이해한 후 작업에 임했습니다. 또한, 번역된 문서는 시민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셨기에 원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였습니다. 헌법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의 법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영어의 법률적 용어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국가마다 법률이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며,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우루처럼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도 헌법이 가지는 상징성과 기능이 뚜렷하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미얀마와 같이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헌법에서는 정치 체제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법률 구조의 특징이 잘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 문장씩 영어문장을 해석하면서, 예정되어있는 교환학생 준비에서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략>공약이행 조사 업무는 정책이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일정, 주민의견 등 다양한 요소들과 얽혀 실현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률을 수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하면서, 공약의 구체성과 측정 가능성이 얼마나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이는 향후 제가 시민으로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이었습니다. 한 공약씩 정성스럽게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런 흐름으로 정책의 공약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은 멀고 어렵다"는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 결국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규범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더 투명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법과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던 저에게 직접 부딪혀보고 활동하면서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공익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법과 정치가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하며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전문인으로서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국민대학교 박 ○ 주

2024 겨울학기 봉사활동에 이어 2025 봄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 겨울학기에는 필수활동이었던 법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면, 이번 2025 봄학기에는 필수활동으로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번 학기와 달리 의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법 및 입법, 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2025 봄학기 봉사활동의 첫 번째 필수활동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법정치의식을 수렴하여 추후 국정감사나 청년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의미 있는 봉사였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해보면서 사법 현안, 대북정책,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확인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이다 보니 쉽사리 부탁하기에 조심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던 활동이었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사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였던 만큼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활동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군수와 경기도 여주시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하였습니다. 각각 100여개에 해당하는 공약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판단기준에 따라 이행점수를 기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인 만큼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약이행률 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이 현재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공약이행률은 조금 과대평가된 수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군민을 위한 실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공약들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조차 들어가 살펴본 적 없고, 선거 이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이러한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가지 필수활동 외에도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차임증액, 마일리지지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보험금에 관련된 판결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판결 전문을 살펴보며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법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기사나 판례평석을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리걸마인드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 경희대학교 박 ○ 찬

이번 법률 봉사활동에서는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판결문 리서치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학생 2025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동료 대학생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법이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법이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규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판결문 리서치에서는 대법원의 여러 사건을 직접 다루며,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비교하고 각 심급별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법원이 어떤 쟁점을 중시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24도104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녹화한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녹화한 것은 해당 법 조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조문의 해석과 실제 적용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판례가 사회 변화에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4도8707)에서는 조직적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주범과 직원의 추징금 산정 기준,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각 심급에서 어떻게 추징금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직원 급여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 사건을 통해 법이 단순히 규범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해악을 막기위해 복잡한 구조와 실무적 현실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알 수 있었다.부당이득금 사건(대법원 2024다238217)에서는 보험회사 간의 구상금 분쟁과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 그리고 사무관리 여부에 대한 쟁점이 중심이었다. 1심과 2심에서 과실비율과 구상금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이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부상 후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인상적이었다. 판례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도 실감할 수 있었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4도7832)에서는 잠정조치 위반의 성립 여부와 죄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도록 한 경우,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잠정조치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업무방해 사건(대법원 2022도5573)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심신장애 감경 여부가 쟁점이었다. 각 심급에서 어떻게 법리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의 정신질환 여부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이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증거에 대한 법원의 평가, 그리고 법률 해석의 깊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쉽게 정리하는 작업은 큰 도전이자 배움의 기회였다. 복잡한 법적 논리와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과정에서, 법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의 집합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앞으로도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누구나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판결문을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는 경험이 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깊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중략>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책임감을 키워가고 싶다.

○ 동국대학교 방 ○ 영

이번 봄학기 봉사는 사실 이전 2024 겨울학기에 했었던 법률 봉사가 나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서 하고 싶기도 했지만, 학기 도중 시간이 많지 않아 고민을 했었다. 그러다 이전 학기 필수활동이었던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에 봄학기 봉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은 완료하지 못했던 법정모니터링 활동과 이번 학기 필수활동만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이전 학기에 흥미가 있었던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나 번역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다. 매 순간 후회를 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잘 분배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더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진행했던 나이지리아 헌법 번역 봉사는 언어가 영어였음에도 평소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듯한 느낌이었다. 영어지만 단어 자체에서 오는 생소한 느낌과 너무 어렵게 번역하거나 너무 쉬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중간점을 찾는 게 다소 어려웠던 것 같다.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상당히 유명한 사건으로, 한 번쯤 다루어보고 싶었던 사건을 리서치 해볼 수 있어 뜻 깊은

경험이었다. 또한 이전 학기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법정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예상했던 횟수보다 적게 진행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개인 사정으로 통학을 하게 되면서 법원 견학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서울행정법원을 가서 방청해 보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이번 활동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게 되면서 건물이 굉장히 넓고 사람이 많아 이전 원주지원 법원에서 방청했을 때와 느낌이 너무 달라 신기하면서도 다소 위축되는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봉사활동도 아쉬움이 크지만, 필수활동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상당히 흥미로워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수활동(법정치의식조사 /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이번 2025 봄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필수활동이었던 두 가지 활동을 처음 경험하였다. 먼저 법정치의식조사 활동은 설문지를 보자마자 요즘 정치적 상황과 법률적 문제들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문항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봉사활동 자체는 재택봉사이지만, 해당 경우는 직접 설문지를 돌리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금 더 기억에 남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다. 6건 밖에 진행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 또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주변에 많다는 사실과 최근 들어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해준 활동인 것 같다.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은 이번 봄학기 활동 중에서 가장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오래 걸린 활동인 것 같다. 처음 활동을 안내받고 시작할 때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밌있었 던 것 같다.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적은 현수막을 보는 것에 그쳤었는데 직접 공약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행률까지 조사하다 보니 실제로 확실히 비교가 많이 되었다. 그전까지 나는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정도는 알아도 그걸 이행하는지 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맡았던 후보들은 전부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각 시장실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 페이지를 따로 신설하여 얼만큼 이행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현황과 계획은 어떠한지 정리해 놓은 후보도 있었다. 공약이 적게는 수 십 개에서 많게는 수 백 개까지 있는 것을 보고 이걸 언제 다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정리하다보니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당 활동이 특정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약이행률조사는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 (개인적인 자기계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배 ○ 경

작년 겨울, 법조인의 꿈을 꾸면서도 법률에 무지했던 제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막연한 기대로 신청했었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겨울학기 봉사활동 이후, 좋은 경험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2회차 봄학기 봉사활동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헌법 번역 봉사를 위주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번역 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법률 용어와 개념을 번역하는 것이 단순한 언어 간의 변환이 아니라 법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항을 우리말로 옮기기 이전에 해당 국가의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행정 및 정치 체계 등을 조사한 후에 그 맥락에 맞게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같은 단어도 국가마다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다른 경우가 있었고, 비슷한 단어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해당 국가 헌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 특히 신경 쓰며 번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꽤 많이 투자해야 했던 활동이었지만, 봉사활동을 마친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결과물과 경험이 뿌듯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봄학기 필수활동으로 진행되었던 2025년도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체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제 또래의 학생 및 청년들이 입법과 정치 활동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 또한 우리나라 정치 현황과 행정체계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민주주의가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필수활동이었던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기회가 될 때 뉴스나 선거 공보만 보고 넘겼던 내용들을 직접 하나하나검토하고 확인하는 활동은 저에게도 꽤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활동이었지만 왜 어떤 공약은 빠르게 이행되고 어떤 공약은 지연되는지를 파악해보면서 공약이라는 것이 단지 말만 앞서는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직접 확인하고 기록해보니 실제로 일부 공약들은 실제 기사나 보도자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에 비해 과도하게 제시된 것들도 있어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공약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서 해당 활동과 같은 시민감시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런 활동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 ○ 은

이번 2025년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법정치 설문조사',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및 '판결문 리서치'와 '번역봉사'를 할 수 있어 저에게 유익한 한 학기였습니다. 저는 법학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이래로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 관련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도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입니다. 학부 과정에서 '형법' 과목을 가장 좋아했고,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형사법 과목을 흥미롭게 들었기에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는 5회차 내내 살인, 강간,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형사특별법'이라는 로스쿨 과목을 수강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학부수업과 로스쿨 수업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다른 점은 로스쿨 수업에서 무수한 판례들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업에서 다룬 판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이후에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을 이번 봄학기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하여 판결전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다면 판례의 판결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판결전문의 문장들을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중앙대학교　소 원 섭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법조인에 대한 꿈을 키우며 법학 전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교를 재학 중인 시기에는 학업에 몰두하다 보니, 졸업 후에는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해야 해서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후배에게 추천 받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번역 봉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공약 이행률 조사,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제 현장과 우리 삶에서의 법에 관련한 일들이 어떻게 행해지는 지 직접 보고 경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전공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헌법 번역 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모잠비크 이렇게 두 국가의 헌법을 일부 번역하였습니다. 두

국가 다 법전이 영미권 법 체계로 작성되어 있어서, 한국 법 체계로 구성들을 어떻게 정확하고 적확하게 번역해야 할 지, 용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영미권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 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타 국가의 헌법을 비교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연방국가이자 국교가 있는 국가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주(州)에 관한 부분과 연방에 관한 부분, 국교인 이슬람교에 대한 부분이 자세히 헌법에 명시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주위 또래들의 여러 생각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나 법의식에 관한 뉴스를 보거나 그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볼 때 정말 그러한 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에 더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표본이 제 주위에 한정되어,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중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 특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이 높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뉴스나 댓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니 놀라웠습니다.

공약이행률조사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어갔던 활동이었습니다. 안양시장과 양주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였는데, 두 후보 모두 공약의 개수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내걸었던 모든 공약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게시해 놓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약을 변경하게 되거나 폐기해야 할 때, 시장 임의로 할 수 없고, 심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약 이행 여부를 누구든 확인할 수 있고 공약을 남발할 수 없도록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과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의 소산으로 느껴져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바를 모르고 있고, 일반 시민에게 알리려는 홍보 등의 노력도 없어서 접근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중략>

책과 강의로만 법을 공부해왔던 저에게 책과 강의가 가르쳐 줄 수 없는 실제 법과 정치에 관한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서 매우 보람차고 의의가 컸습니다. 아직 법조인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과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깨닫고 배운 바는 그러한 과정과 기간을 거치는 동안, 아니 법조인이 되어서도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 경북대학교　송 ○ 지

1. 법·정치의식 조사

이번에 청년·대학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의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지인들은 '답변 하나하나를 선택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진지하게 설문에 임해 주었습니다. 표본이 8명으로 매우 작긴 했지만, 다들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 주제에 대하여 무엇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혼란스럽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지라 막연하게 이들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사회 문제에 대해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들 되도록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법·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매우 종요하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2.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그들이 선거 당시 제시한 약속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의 경우, 농촌 지역의 특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정책 추진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의 경우, 경산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교육·문화 분야 공약 이행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단기간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공약 이행 정도를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항상 선거 후보들의 공약들을 볼 때마다,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키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꽤 많은 공약들이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예산 및 행정절차의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등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 감시가 동반될 때, 보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사하면서, 공약은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행정의 기반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으며, 공약 내용의 질과 공약 이행률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 체감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공약을 모두 살펴보고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사하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3. 번역 봉사

저번 학기에 이스라엘 헌법 번역 봉사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역사·문화·법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과의 공통점·차이점을 생각해보는 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나이지리아, 오만, 노르웨이, 파키스탄의 헌법 번역 봉사를 수행하였는데, 단순히 언어만 변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파키스탄과 오만처럼 이슬람 문화가 반영된 헌법을 번역할 때는 종교적 표현과 법적 용어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헌법을 좀 더 깊게 이해해보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와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법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서울대학교　송 ○ 인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면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법, 정치와 관련된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인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봉사활동 후기들, 또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봉사활동 설명을 보고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총 4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 판결문리서치, 법정치의식조사,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를 학기 중 틈틈이 하였습니다.

법정모니터링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개의 민사재판부와 6개의 형사재판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재판 진행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사건 하나의 템포를 길게 잡지만 민사사건은 사건 하나하나가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사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민사사건의 처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부르고, 한 사건을 한 시간 가까이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서 법원이 사건을 신중히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공정히 처리하고자 노력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는 임금 사건 한 가지와 위증 사건 한 가지, 총 두 개의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증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관련해서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판결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논리, 즉 법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평소에는 잘 접하기 힘든 글의 형식일 뿐 아니라, 글을 구성하는 방식 역시 제가 평소에 자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여러 번 살펴보고, 관련된 법조문들을 살펴보면서 점차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법을 익힐 수 있었고, 첫 번째 리서치보다는 두 번째 리서치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에서는 의왕시장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을 살펴보고, 해당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왕시장의 경우 약 100개의 공약, 용인특례시장의 경우 약 200개 중반대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잘 이행되거나 이미 완료된 공약도 있었던 반면에, 잊힌 공약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 상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선거철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후 꾸준히 정치인들의 행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잊힌 공약들은 점차 늘어날 것이고, 정치인들은 환심 끌기용 공약만 내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즉, 정치인의 책임성이 약화되는 것인데,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성장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정치의식조사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였는데 열정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의 봉사활동을 마무리지으면서, 지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학기 중 여러 공부와 봉사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의미있게 꽉 채운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송 ○ 경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를 한 학기 간 진행하며,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법과 사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봄학기 자원봉사의 필수 활동이었던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와 함께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의 주변에 있는 법, 그리고 법과 함께 그려지는 사회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이전에는 제게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활동은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와 언론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총 5개 지역이었습니다. 무작위로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북구와 그 주변 지역들을 배정받아 더욱 친숙하고, 또 열의 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자료 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를 통해 개선된 제 생활의 부분을 떠올리며, 행정 및 자치의 중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실감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5개 지역의 공약을 검토하고, 또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마다 가진 특성에 따라 공약과 주요 실천 과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 복지, 교육, 환경, 행정 등 제시된 공약의 큰 틀은 모든 지역이 거의 동일하였고, 유사한 공약 역시 많았습니다. 보육 및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구 할 것 없이 모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주차 공간 마련, 재건축, 노후 시설 보수, 자연공간 조성 등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달리 아파트 재건축 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 대학교가 많이 위치하여 청년 및 교육 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 개천과 산이 많아 환경 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 등 저마다 마주하고 있는 중요 과제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분야의 동향을 파악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월 넷째 주의 경제지 사설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요 경제지 8곳의 사설을 분석하며 한미 관세 협상, 대선과 같은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슈임에도 주목하는 지점이 다르다거나, 또는 다른 언론사임에도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등 개별적으로 사설을 읽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지라는 분석 대상 언론사의 특성상 기업 규제, 해외 주식 투자, 관세 및 국제 동향과 같은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립, 견해 차이,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난관 등 여러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국민으로서 경제지 사설 분석 활동은 제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신 ○ 희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에서, 필수 활동이었던 법의식 설문조사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외에 법정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맞는 소감문을 분류 정리하여 작성했습니다.

1. 법의식 설문조사

활동했던 봉사 중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봉사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이 선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위헌 논란에 대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 진행한 본 설문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한지에 따라 선호하는 정당이 달랐는데, 이번 사건에 기반하여 그 색깔이 더 뚜렷해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정당도 믿을 수 없다고 회의감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좋게 보지 않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쉬쉬되는 사회이기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법과 정치의식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하는 이들도,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정치 참여 의식을 기르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지에 대해 고민하던 와중 본 설문조사를 통해 뜻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치 운영에 있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등과 같은 여러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2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공약 이행률을 조사했습니다. 기사와 신문 등을 통해 얼마나 공약이 정말로 이행되었는지 찾아야 했기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너무 많은 공약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사실 공약이 많은 것은, 정말 이만큼 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이만큼이나 많이 할 것이니 뽑아달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공약이 각각 다른 내용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갈래의 작은 사업들을 다 분리해 놓은 것뿐임을 느꼈습니다. 또한 모호하고 애매한 공약도 있어, 이행이 된 것인가에 대해 판단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투표를 할 때 공약의 수보다는 공약의 내용과 정말 이행 가능한 목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법정 모니터링

처음으로 법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면 무거운 이미지이고, 가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직접 가본 법

원은 어느 누구나 출입을 하고 자유롭게 방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만 보던 법정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결이 이루어지며, 논쟁적인 분위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진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상상으로만 가득했던 저의 진로에 현실감을 부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판결문 리서치

대법원 사이트에서 여러 판례들을 보면서, 쟁점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활동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조세법과 관련한 판례를 보며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흥미롭게 느끼는 판례를 선택하여 찾는 것이라 부담없이 진행했습니다. 법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느꼈고, 1심, 2심, 3심의 판례문을 모두 읽다 보니, 각 재판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핵심 쟁점이 달라지고, 판결마저 뒤바뀌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넓은 시각과 논리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 ○ 경

지난 2024년 겨울학기에 처음으로 했던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에 보람과 의미를 느껴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도 자연스럽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필수 활동이 다르기에 다양한 관련 활동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고 이번에는 저번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하지 못한 법정 모니터링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해 법에 대한 막연한 흥미와 관심에 대해 조금이나마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채웠기에 작은 시간이나마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에 대한 갈증을 봉사로 채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기의 필수 활동은 두 가지였는데, 청년 대학생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청년 대학생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는 마침 6월 대선을 앞두고 한 터라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혼란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과 대학생의 법정치 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스스로 또한 대선을 앞두고 그와 관련한 생각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주로 설문조사를 부탁했는데, 처음엔 주위 사람들과 정치 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주제를 부끄럽고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생각들을 통해 더욱 사고의 방향과 크기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진병영 함양군수와 조근제 함안군수의 공약을 검토하고 이행률을 조사했습니다. 항상 선거 전 공약을 훑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투표만 하였지 이번 이행률 조사처럼 선거를 통해 뽑힌 후보의 공약이 하나 하나 이행되었나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공약을 내지만 그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함일 뿐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편견과 불신이 컸었는데, 이번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지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 나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지역 별로 이행되는 정도는 다소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진병영 함양군수와 조근제 함안군수는 공약의 상당부분을 이행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도 최대한 상황과 타협하고 절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군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이행률을 홈페이지를 통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공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러한 지자체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스스로가 다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지자체장에 건의하고 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선거의 중요성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봄 학기 봉사에서는 지난 겨울학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법정모니터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많이 하지는 못했으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고 재판을 방청해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에겐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단순히 방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갔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더욱 귀 기울여서 재판 내용을 듣고 기록했기에 더욱 유의미했습니다. 평소 매체로만 접하던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면서 법조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기분이었으며, 재판 공개의 원칙으로 시민의식 또한 고양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번역 봉사도 하였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전공어인 독일어로 독일의 법률도 번역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파키스탄과 말라위라는 다소 생소한 나라의 헌법을 번역하였는데, 헌법 번역 전 해당 나라에 대해 조사를 한 뒤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기에 해당 나라의 특성과 헌법의 성질을 연결시키며 번역하려 애썼고 이를 통해 헌법의 성질, 성격을 연구하는 일이 재밌고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적 제약으로 많은 활동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채우지는 못하였지만,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양하고 유용하며 봉사활동이라는 값진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실제 재판을 방청한 점, 지방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고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크고 값졌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법과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제 경험과 생각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신 ○ 룡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법적 가치관과 법 사회에 대한 이해를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헌법 번역, 심민과 최훈식 민선 8기 지차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뿐만이 아니라, 현재 정치 상황이나 시민 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의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법은 최소한이며, 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헌법 번역을 통하여, 저는 각국의 헌법과 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법제도의 차이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의 헌법은 이슬람교의 원칙을 반영하고, 팔레스타인의 헌법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파나마의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법과 각 나라가 가치를 두는 것을 찾으며, 저는 각국의 법제도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민과 최훈식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를 통해서는, 나는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공약 이행률의 중요성과 지자체장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방자치의원을 제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저로써는,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민과 최훈식 지자체장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역구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법처럼 꼭 지켜야 된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저는 청년들의 법정치 의식과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치 정치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법정치 의식은 법을 지키는 데,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법을 지키고, 높은 국민

의식을 가진 상태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들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의 중요성과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저는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신 ○ 우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과 설문조사는 '법'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구체적인 시민 감각과 연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시민이 법과 정치,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가시화해, 단순한 여론 조사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사법 신뢰와 법치주의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사는 현실적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

법정 모니터링은 판결의 공정성과 법관의 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는 의미가 크다. '공정하게 보이는 재판'이란 실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인상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외부 감시의 존재만으로도 사법부에 일정한 긴장과 자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언론 및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또한 권력 기관과 공적 정보의 흐름을 감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인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단순한 비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견제'의 좋은 사례로 읽힌다. 이처럼 법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은 '알 권리'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

○ 고려대학교 신 ○ 호

2025년도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법률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시야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헌법과 국내 사법 체계를 비교·분석하며 법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파나마, 팔레스타인, 팔라우,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직접 읽고 번역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헌법이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각 조문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강조점 등은 그 사회가 걸어온 정치적·종교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종교적 가치가 헌법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반면, 또 다른 국가는 권력 분립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등, 헌법이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형사재판, 민사재판, 소액재판 등 다양한 재판을 방청하는 법정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법정을 방문했을 때는 재판의 절차나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총 8회에 걸친 방청을 통해 재판의 구조를 점차 익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장의 판결을 들으며, 법이 단순히 피해자나 가해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나 사회적 교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판결 결과를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저의 시각이 보다 균형 잡힌 법적 사고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진행한 법정치 의식 관련 설문조사 활동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해당 설문에 참여하면서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정치적·법적 가치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설문 문항을 읽으며, 평소에는 막연히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여겼던 법과 정치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려 하자, 그 근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설문 내용 속 가상의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할 경우의 파장까지 상상하며, 법적 사고의 깊이를 스스로 확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공약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며,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단순한 공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정치인이 왜 특정 공약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한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이행 여부가 시민과 정치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기 법률봉사 활동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활동을 통해 법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이 사회와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헌법을 비교하고, 실제 법정에서의 판단과 절차를 목격하며,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조율하는 장치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는 법이 단지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실적인 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마다 헌법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비교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적 요구가 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재판 방청과 같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는 법적 판단이 얼마나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설문조사와 공약 분석 활동은 시민의 입장에서 법과 정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저의 법정치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법이라는 대상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 인하대학교 신 ○ 호

안녕하십니까? 작년 2024년 겨울학기에 이어서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신지호입니다. 해당 학기에는 필수 봉사활동이었던 2025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를 포함하여 판결문리서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 후 급격하게 진로를 법조인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활동을 찾던 도중에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봉사시간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진로로 희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꼭 참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외활동의 경우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는데 법률소비자연맹은 재학생말고도 휴학생, 졸업생, 일반인까지 전부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비대면 활동이므로 탄력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에 제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학기에는 법정모니터링이 필수 활동이었기에 직접 거주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 및 형사 재판을 방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법정은 법조인들의 주 활동 공간이지만,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일지라도 법조인이 되기 전이라면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재판은 공개원칙에 따라 국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방청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법정모니터링 활동 이전에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한 번도 방청해 본적이 없었는데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방청하면서 실질적인 법조인들의 업무와 이에 임하는 모습 등 현장감이 그대로 담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조인들의 언행과 태도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느끼며

나중에 법조인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 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겨울학기에 언론모니터링과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였고, 판결문리서치는 2025년 봄학기에도 이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활동은 언론과 법원 서로 다른 근원이지만, 짜임새 있게 쓰인 글을 다량으로 읽어야하는 활동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LEET 시험을 봐야하는데 그중 논술 과목에서 짜임새 있고 주장하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는 작문 능력을 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문 능력이 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문 능력이 뛰어나다고 공인된 사람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도입부에서 독자의 시선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주장하고자하는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강조하는지 등을 인지하면서 많은 글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작문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언론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칼럼리스트들이 작성한 사설을 읽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한정적인 분량 내에서 사설 주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함과 동시에 강렬하게 본인의 정치 이념이 담긴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판결문리서치 활동을 위해 판사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었을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며 읽는 이로부터 해당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재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특히나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는데, 글 전문을 읽고 하나의 문장이나 한정된 분량으로 간결하게 요약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았던 제게 판결문리서치 활동에서 판결요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실력을 늘리기 위한 연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길게 늘어뜨려 말하거나 작성하다보면 내용이 자세하여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읽거나 듣는 시간 역시 늘어나다보니 상대가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에 내가 전하고자하는 쟁점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작성을 통해 제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5년 봄학기 필수 활동이었던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역시 다른 단체에서는 쉽사리 접할 수 없는 활동이었기에 처음 활동 양식을 읽으며 낯설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직접 찾아보고 조사하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광범위한 공약보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대부분 선거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투표하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세히 읽어보고 공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투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 역시도 이 정도로 지자체장의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국민들의 표가 헛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장을 보면서 내 표의 가치가 어마어마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활동 당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만큼 더 직접적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활동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있었고 다른 봉사자에 비해 덜 다양하게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무조건 꼭 해봐야하는 핵심 활동들은 전부 참여한 듯합니다.

또한, 중간 중간에 현실적인 부분과 맞물려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마감 직전에 소나기 내리듯 신청하고 제출하며 어려움과 힘든 부분도 적지 않았지만, 두 학기 모두 끝까지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독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활동이기에 활동의 모든 부분을 관계자 선생님들께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데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답신을 받는 과정에서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과 독려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학기에 활동하는 인원만 해도 몇 백 명이 될 텐데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사정에 맞는 전부 다른 답을 보내주시는 것부터가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감동적인 요소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아 다음 학기로 넘기려 했을 때, 신청한 활동을 제출했을 때, 궁금한 부분을 문의 드렸을 때 등등의 상황에 관계자 선생님께서 그에 맞는 답변과 더불어 독려와 칭찬을 해주신 덕분에, 정말 그 부분이, 최소한 저한테만은 크게 다가와 활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감을 쓰는 자리를 통해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 전부 법조인을 진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치 있고 값진 경험이라 이것만으로도 참여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자 선생님들이 세세하게 신경 써서 피드백 주시는 부분 등 점점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면서 법률 분야의 직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경험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봉사활동 시간을 받으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까지 얻어갈 수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은 꼭 법조인을 꿈꾸지 않는다 하여도 나라가 움직이는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자격이 있다면 꼭 한 번 해보면 좋은 활동이지 않나 싶습니다.

○ 전남대학교 신 ○ 호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사회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의 실질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법학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넓힐 기회였습니다.

외국 헌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역사와 종교, 정치 구조 등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헌법 조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은 각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가 반영된 체계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국가마다 헌법이 갖는 구조와 내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대를 대상으로 한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또래 청년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준법의식, 선거 참여 인식, 인터넷 정치 여론에 대한 반응,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등 여러 항목을 조사하며, 법과 정치는 결국 개인의 삶 속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분석 활동은 법적 개념과 현실 사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판결을 조사하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법 적용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나 '거래 제한'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판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법 해석에서의 명확성과 일관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약속이 시민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법정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재판을 직접 관찰하면서 법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한 건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과정, 검사가 공익을 위한 기소와 신문을 수행하는 모습, 변호사가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습 등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활동들은 법을 단순히 공부의 대상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넘어, 법이 사회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는 도구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속 법의 역할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법률적 소양과 시민의식을 함께 갖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심 ○ 서

저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연맹 봉사활

동을 신청했습니다.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잡은 후 법학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직접적으로 법학에 관련된 활동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로스쿨 준비생이 법률연맹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법률연맹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해 본 결과 많은 로스쿨 준비생들이 법률연맹 봉사에 참여하고 있고 활동 내용이 법학과 관련이 깊어 보여 앞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봄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하기 전 저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니까 수험생활과 병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스펙을 쌓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을 해보니 꽤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헌법번역 봉사와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헌법 번역 봉사는 개별 국가별로 같은 단어이더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팔 헌법에는 The Provincial Head라는 지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주의장이라고 해야 하는지 주지사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회 소집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맥락상 주의장이 적합해보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지사를 governor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국가에서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고민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몰디브 헌법에는 the People's Majlis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생소한 단어여서 번역기를 돌려보아도 원어 그대로 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단어들을 해석하기 위해 네팔의 행정구역과 몰디브의 사법체계를 조사해 보았고 각각 주지사와 국민의회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어느 국가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배경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저에게 흥미로운 판결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을 1심에서부터 3심까지 훑어볼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각 재판부마다 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변천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마다 중요하게 본 쟁점이 다르기도 하고 같은 쟁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원고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줬는지 읽으면서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판결문 리서치를 하면서 가장 큰 수확은 판결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막연히 판결문은 일반인이 읽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법학 용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 용어를 모르더라도 맥락이나 취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법학적 사고 과정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히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전문성과 식견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법률연맹 봉사활동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선 타 국가의 제도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고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법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신경쓸 게 많았던 활동이지만 고민하는 시간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고 보람도 큰 시간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로스쿨을 진학하기 전에 법조인이 내 적성에 맞는지 활동을 통해 테스트 해보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활동을 통해 제 진로에 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려 합니다.

○ 국민대학교　안 ○ 정

법률을 실전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있던 와중에 법률연맹 봉사활동을 알게 되어 205년도 봄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가장 관심이 갔다. 전공 공부를 하며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익히는 거에서 더 나아가 직접 판결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총 5회 판결문리서치를 하였는데, 활동을 할 때 일반인분들의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봉사활동의 목적을 생각하며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가진 민,형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루려고 하였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여러 번 활동을 해나가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판결문에서 나오는 '기능적 행위지배'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와 같은 개념들이 나올 때면 이해하기 힘들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렸다.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때, 이해하기 힘들어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내가 더욱 공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전공 공부에 대한 열의가 더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법 공부를 계속해나가며 공,사법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배우고, 법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얻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법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흥미가 실제 재판 내용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공부해보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법조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다른 다양한 종류의 재판들을 리서치 해보면서 법적인 도구들을 더 많이 얻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마무리하며, 처음 판결문 리서치 활동을 했을 때에는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법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기인하여 이 활동을 선택하였는데, 여러 번 판결문 리서치를 해보니 형사, 민사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을 접해보는 것이 법률 공부는 물론 판결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식을 만든 것 같아 많은 것을 얻어가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학교 공부와 더불어 리걸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기억되게 될 것 같다.

○ 연세대학교　오 ○ 주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선은, 가장 최근에 했던 필수활동인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서울특별시에서조차 주민들이 뽑아준 그들이 과연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크게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남도 강진군과 고흥군의 군수들 활동과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군수들이 임기 중에 정말 하는 일이 많고,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들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해왔음을 느꼈다. 공약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조사하기까지 하루종일,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군청 홈페이지에 공약 사업별로 세부적인 이행현황을 게시해둔 점이 신선했고, 이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 덕분에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조사한 전라남도 강진군과 고흥군 뿐만 아니라, 내가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공약이행률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에서 국민들의 '감시'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고, 청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치를 위해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다른 필수활동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많은 또래 친구들과 언니오빠 동생들이 생각보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전공이 정치외교학과라서 정치에 관심도 많고 정치용어가 익숙했는데..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한 친구는 '양원제'가 뭐냐고 물어보고,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용어들이 어려워서 설문조사 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도 알기 쉽게 다가가는 정치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어차피 이런 거 해봤자지.'라며 정치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 모습들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확실히 청년들에게는 정치적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해외 국가들의 헌법을 번역하는 '번역봉사'도 진행했었는데, 나는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니제르', '나미비아', 그리고 남태평양의 '팔라우'라는 국가의 헌법을 다뤘다. 우선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는데, 내 스스로 너무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아프리카는 내전과 쿠데타가 잦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자주 접했어서 그런지, 아프리카의 아주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들 국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각 나라에 대해서, 이들의 헌법에 대해 조항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들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체계가 잘 잡혀있고,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민주정치를 운영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정치체계와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들 특색의 특징들도 존재함을 느껴 새로웠다. (예를 들면, '전통지도자모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헌법들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번역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의 시야도 국제적으로 많이 확장되었다.

○ 연세대학교　오 ○ 빈

이번 봄학기 법률 봉사활동은 내게 많은 성찰과 배움을 안겨줬다. 대학생 법정치 의식 설문 활동에서 시작하여 판결문 리서치,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률이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먼저, 법정치 의식 설문활동은 일반인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작업이었다. 설문을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정치에 대한 인식과 알아 볼 수 있음과 더불어, 설문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법과 사회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을 탐구하면서, 법률이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도 인상 깊었고,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면서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했다. 특히, 성별 정정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루면서 법적 판단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된 판결에서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법적 판단을 분석하면서 법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은 법적 사고와 현실 정치의 접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공약 이행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공약이 법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이 활동을 통해 나는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사안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법률 봉사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히 규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또한, 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힘이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의 꿈인 법학을 더 깊이 공부하며, 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싶다.

○ 연세대학교　오 ○ 연

<법과 가치, 그리고 입법의 무게>

이번 학기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며, 내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즉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이었다. 단순히 법의 적용과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속한 시장과 사회의 맥락 속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주주 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당한 채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내가 이 판결을 읽으며 느낀 것은 인간적인 연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협소하게 구성된 한국의 주식 투자 생태계에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투자자 보호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만 시장의 신뢰와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리서치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근 한덕수 전 대행이 상법 개정안을 거부한 사례와 맞물려, 이번 판결은 법의 해석이 단순히 조문에만 기대지 않고,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이란 결국 사회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국처럼 투자 생태계가 좁고, 대주주 중심의 구조가 강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다.

이번 리서치를 통해 법이란 단순히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와 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특히 입법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 입법자의 역할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법이 시장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 그리고 입법과 판결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은 내게 법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이 ○ 진

2025년 봄, 법률소비자연맹 대학생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저는 다양한 분야의 법・정치적 현안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 분석, 그리고 청년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까지, 이 활동은 제가 이론으로 배운 지식을 실천적으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시선에서 법과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성찰하는 기회였습니다.

먼저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언론의 프레임이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시각에서 사건을 조명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언론이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언론의 입장 차이가 여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정치외교학도로서 향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법학 복수전공생으로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사건(2024후11026)을 분석하며, 사실관계, 쟁점 정리, 각 심급의 판단과 판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판단의 흐름 속에서, 어떤 요소가 법적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쟁점이 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며, 법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 분석을 넘어, 논리적 구조화와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갖추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장 공약 분석은 현장의 행정이 시민에게 어떻게

약속되고 이행되는지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었습니다. 음성군과 옥천군을 중심으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과정은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선거 시 약속한 내용과 실제 행정 성과 간의 간극을 들여다보며, 단순한 비판이 아닌 근거 있는 비판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정치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는 '또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법에 대한 인식 부족,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냉소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절감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의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번 학기에는 법정 방청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법의 작동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친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곧 극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여름학기 봉사단 활동에도 다시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번에는 놓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봄학기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주체적으로 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학술적 체험을 넘어,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었고, 저의 진로와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법률과 정치는 결국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다시금 느끼며, 앞으로도 현실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치외교학도, 예비 법조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동국대학교　이 ○ 원

이번 봉사활동으로는 판결문 리서치와 법정모니터링 두 가지를 진행했다. 두 가지 봉사활동 전부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찾아본 적이 없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찾아야 했는지도 잘 몰랐다. 그리고 판례를 읽어본 적은 있어도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을 하면서 판결문은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알게 되고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판결문이 대체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문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번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논리적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읽으며 재판 진행 방식과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이해하는 게 꽤나 흥미로운 활동이었다.

그리고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법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어디에 어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법원을 검색해 찾아가게 되었다. 처음엔 법원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법원에 공항에서나 볼 법한 금속탐지기와 보안 검색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처음 보는 것도 상당히 새로웠다. 그래도 들어가고 나니 카페, 식당 등등 여타 다른 회사 건물들과 비슷한 점도 있었던 것은 친숙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재판부가 있는 위치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재판부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몰라 봉사진행에 혼동이 있었다. 재판 진행 방식과 방청 방법도 예상과 다른 새로운 점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봉사활동의 특색있는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원 건물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느낌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이렇듯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있는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연세대학교　이 ○ 림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닌, 실제로 사회와 법을 연결하는 생생한 경험이었다. 판결문 리서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조사, 그리고 대학생 법·정치 의식 설문조사라는 세가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체감할 수 있었다.우선 판결문 리서치는 법학도로서 가장 흥미로웠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총 다섯 개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판결문이 단순히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법과 현실이 만나는 최전선임을 다시금 느꼈다.

먼저 2024두3714 판결은 국세의 과세관할 판단 기준 시점이 쟁점이었다. 이 사건에서 비거주자인 납세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과세관할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었고, 대법원은과세관할은 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이 누구인가가소송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법의 실무적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음으로 2024다282177 판결에서는 택시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회사는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운전기사들과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합의는 실질적으로 임금보장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형식적 동의가 항상 법적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2024다226474 판결에서는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가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다. 도급인은 계약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제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의사표시의 내용과 맥락상 민법 제673조에 따른 정당한 해제 사유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았다. 계약 관계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해석보다,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네 번째, 2024두65911 판결은 신고내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폭력의 위험성이 존재했고 피해자가 구체적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경찰의 조치 누락에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2024두33556 판결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2차 발전도 화력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제적 활동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세법도 그 기술 변화에 맞춰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했다.

또한, 민선 8기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률 조사는 정치와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은 민생·복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었고, 실제로 복지 예산 확대, 골목상권 지원 정책 등이 눈에 띄었다. 반면, 포항시의 이강덕 시장은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산업, 산업단지 활성화 등 경제 성장 중심의 공약을 추진 중이었다. 두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특히 포항은 R&D 중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었고, 광주 남구는 기초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모습이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제가 이 활동을 가장 즐겁게 느낀 부분이었다. 설문지 자체의 문항 구성이 매우 정교했고,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만한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 설문을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관심,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 공공정책에 대한 기대 등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행정, 정치가 어떻게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지를 분명히 느꼈다.

단순히 텍스트로 공부하던 판례와 제도가, 지역정책이나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법이 사회안에서 어떻게 현실과 만나는지를 탐구하고 싶다.

○ 성균관대학교　이 ○ 탁

2025년 봄학기, 여러 선배들의 추천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2025년의 새학기가 접어듦과 동시에 '노무사'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봉사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를 택하고자 하였고,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은 나에게 너무도 적합하였다. 나는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과 '헌법번역' 봉사활동을 택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판결문리서치 봉사활동의 경우, 사법부의 활동을 감시함과 동시에 판례 분석 및 사건 탐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원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관한 당사자 검색은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추후 내가 실제로 소송을 맡거나 사건을 조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노무사 공부를 하며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다소 복잡한 판례는 판결문리서치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1심, 2심의 쟁점 및 판결을 정리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나로써는 대법원의 모든 판례가 납득가능하며 넓은 시야로 사건을 관망하는 대법원에 경외감이 들기도 하였다. 노동쟁의나 쟁의행위 등 노동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관대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대법원2019도10516 사건은 가장 인상깊게 분석한 사건이다. 법원이 사건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지, 왜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지 아직 예측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이를 따라가서 분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노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판례를 분석하며 후에 내가 맡을 사건의 판결문을 구상해보기도 하였고, 어떤 쟁점을 잡아 주장을 할 것인지를 상상해보기도 하였다. 판결문리서치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노무사 1차에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해준 숨은 공헌자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 번역 봉사 역시 큰 인상을 주었다. 비록 다른 나라의 헌법을 부분부분 번역하여 정리하긴 했지만, 대부분 유사해보이는 헌법들이 조금씩 각 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진행한 국가는 '파나마'라는 국가이다. 사실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그 국가만의 정치 체계와 입법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행정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었다. 여러 나라의 헌법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색다르고 유의미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025 여름학기 봉사활동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횡령죄를 인정한 판사의 판례를 접한 적이 있다.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비롯하여 사법부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감시하고 또 공부해 나갈 것이다.

○ 서강대학교　임 ○ 훈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의 봉사활동을 알게 되었고, 법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론 공부를 넘어, 실무적인 법률 감각과 공익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행한 봉사 중 해외법률(영어) 번역봉사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외국의 법령과 판례를 번역하며 국내법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경험은 비교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법률 영어에 익숙해지는 것은 물론, 번역의 과정에서 법의 맥락과 문화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는 또래 세대의 법적 감수성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활동으로, 법과 정치에 대한 청년층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문 설계와 응답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도함께 키울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공공정책이나 법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할 때도 유용할 것이라 느꼈습니다.

사법감시–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판결문을 검토하며 법리적 타당성과 사회적 여론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었고, 로스쿨 진학 후에도 이러한 분석능력은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률 조사는 행정과 정치, 그리고 시민 감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은, 법률가가 가져야 할 공공성과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히 법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실천되고 감시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도구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로스쿨 진학 이후에도 이러한 공익적 관점을 잃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은 그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 연세대학교　임 ○ 종

이번 봄학기 봉사활동 기간에 법정모니터링, 외국 헌법 번역, 판결문리서치, 청년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지자체장 공약이행률조사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 막연하게 생각했던 다양한 법제의 존재와 행정기관들의 작용,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정치의 구조나 법에 대한 상식이 많은 편이라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학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절차에서 느껴지는 시민 개인으로서의 무력감과 법에 대한 접근성의 부족을 실감했습니다. 그러한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경험은 법정모니터링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이었습니다. 크게 정보 전달 차원의 의의와 감시적 기능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정보 전달이 올바른 법률 소비를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재판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선 법정은 빽빽한 숲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화면에는 재판의 정보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었다고 하나, 재판장의 무거운 공기가 더해져 괜히 긴장도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되었을 때 당연히 전문 법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사법 체계는 붕 떠 있는 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정모니터링 봉사는 사람들이 법과 가까워지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끔 돕고, 법정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혀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좁히는데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판결문리서치 활동은 더 깊은 차원에서 사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선 법정모니터링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법원의 전반적인 태도를 감독하였다면, 판결문리서치에서는 판사 개인의 정보, 변호인의 정보, 사안의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감독하였습니다. 이 활동에서 저는 평소 관심이 있던 행정법 분야의 사건들을 신청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평소 행정법이 우리의 삶과 어쩌면 가장 밀접하고, 또 그 분량과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함에도 민법이나 형법만큼 관심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했던 사건에서는 국적 부여에 대해 행정기관의 착오 여부, 그리고 당사자의 신뢰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대법원및 1심 법원이 행정상의 절차 및 규칙 준수에 앞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것들과 국가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해 (행정법의 두 주체 중) 국민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자는 행정청이나 개인의 잘못을 떠나 개인의 기본적인 권한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문구가 퍽 수사적이었습니다. 법문이나 법적 판단은 딱딱하기만 할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이 깨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공익뿐아니라 저 역시도 배워가는 것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공약 이행률의 조사 역시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국정보다 관심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작 우리가 사는 지역에 가장 직결되는 영향력을 지닌 것이 지방자치이니 앞서 설명한 행정법과 성격이 비슷한 것도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기사로 탐색하며, 말 그대로 국가가, 정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혈액의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이 전달되어

사회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배웠던 학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희대학교 임 ○ 재

이번 2025학년도 봄학기 봉사활동까지 총 4번의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한창 대학생활을 하던 중 시작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는데 벌써 졸업을 앞둔 시기가 왔다. 처음에는 진로 탐색의 일환으로 내가 꿈꾸는 법조인을 더 잘 이해해보기 위해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점차 활동을 이어가며 판결문의 구성 등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법의 영역들을 발견했다. 이를 쉽게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나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더 쉽게 전해주고자 하는 봉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내 활동이 조금이나마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활동을 마칠 때마다 기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이번 학기에는 총 4번의 번역봉사와, 2번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였다. 번역봉사의 경우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의 헌법을 번역하게 되었다.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각 나라마다 헌법의 구성이 다르게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 특히 파키스탄의 경우 삭제되거나 수정된 조문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신기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기록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러한 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헌법이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같다고 느꼈다. 내가 번역한 니제르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집단적 및 개인적 권리, 자유, 정의, 존엄성, 평등, 안전, 복지를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정권 교체와 훌륭한 행정을 보장하는 법치 국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며, 단결된 국민, 존엄 있고 평화롭고 근면하며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할 것을 결의한다.' 이를 보며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생각났다.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운 결과 지금의 헌법이 탄생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질서와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생각하며 항상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판결문 리서치의 경우, 성폭력 및 마약과 관련된 두 개의 판례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례로 피고인 두 명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강간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로 마무리된 사건이었다. 재판의 쟁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은 미수범도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성이었다. 미수범 개념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다른 중하지 않은 범죄보다 낮은 처벌을 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 중 일부였다. 개별적 시각이 아닌 넓은 관점에서 법이 초래할 영향을 생각하는 판사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고려되었다. 하지만 약물을 먹이고 강간을 시도한 것에 대한 죄의 심각성과 보복이 두려울 수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이를 진정한 피해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형식적 정의뿐만이 아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쟁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어 정말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하며 더 좋은 사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 서강대학교 임 ○ 서

2025년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법과시민사회의 관계를 긴밀히 체감할 수 있었다.여러 나라의 헌법 번역부터 공약이행률조사,법정치 의식조사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성격의 활동을 경험하며,법률과 시민사회의 접점을 실제로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5년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 소감문을 통해, 나의 지난 활동별 주요 경험과 배움을 정리하며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세계 헌법 번역]이번 학기 동안 나는 말라위, 나이지리아, 오만, 노르웨이 헌법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각국의 헌법은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 역사적 경험 ,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깊이 있는 법적 해석을 하게 되었다. 특히 말라위와 나이지리아 헌법에서는 식민지 경험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오만 헌법에서는 군주제 하의 입헌 구조가 노르웨이 헌법에서는 오래된 민주주의 전통과 그에 따른 인권 보장의 원칙이 돋보였다. 이와 같은 세계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나는 다양한 법체계의 설계와 기능을 탐구할 수 있었고,여러 국가의 헌법을 그 사회환경과 더불어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어떻게 그 사회 환경을 헌법에 반영하는지 배웠다.

[법정치 의식조사] 법정치 의식조사는 6.3. 대선 및 법의 날,유권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활동이었다. 내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면서 나는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지 '제도'를 위함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고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이번 학기 동안 나는 경기도 의정부시 김동근 위원과 경기도 이천시 김경희 위원의 공약이행률을 조사했다. 이는 법과 정치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실천적 활동이었다. 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실제 정책이 되고,그 정책이 예산 및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했다. 위원의 공약별로 행정자료를 검토하고 보도자료를 추적하며 정책의 흐름을 따라가야 했기에 큰 노력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나는'공약'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리고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적 책무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번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은 국가의 책임 있는 운영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주권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느꼈다.

끝으로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봉사활동하나하나가 단순한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우리 공동체 전체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법률소비자로서, 또한 미래 법조인으로서, 법과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음을 자부한다.

○ 중앙대학교 장 ○ 은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왔었지만, 학기를 병행 중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우연히 알게 되어 벌써 세 학기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필수활동인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부터 다양한 국가의 번역 봉사활동과 법정 모니터링 활동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법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저와 제 또래의 2030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법 제·개정 또는 헌법 개헌 사항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통해 당선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사회 문제나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보니 확실히 당선자 공약 중 노인에게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공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약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당선 후에 이러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이행률이 높은 편인 지자체를 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저조한 이행률을 가지고 있고,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잘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를 보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봉사활동은 제 전공이 영어영문이다 보니 영어 번역을 신청해서 말라위 헌법, 마셜 제도 헌법, 그리고 나미비아 헌법 번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헌법을 접해볼 일이 없는데,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벌써 세 학기째 영어 번역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제 언어적 재능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고, 다음 학기에도 번역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양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보고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법정 모니터링이 2번째, 3번째였어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듣고 해당 쟁점에 대해 피고(또는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듣고,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서 제 꿈에 정말 가까이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재밌었던 점은 화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던 점인데, 양측 변호인이 시간을 모두 내기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간편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 신기했습니다.

2025년 봄학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제 꿈에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서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 활동을 추천해서 이번 학기에 같이 활동했는데, 가능하다면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 ○ 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법과 정치, 행정,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넓히는 매우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과제들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고, 각 활동을 수행하며 얻은 배움과 고민은 제 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활동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응답자들의 태도, 표정, 말투 등을 통해 숫자이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북정책, 외국인 현안, 국회의 역할, 정치개혁, 선거와 투표 참여 등 구체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민감도와 법의식의 실태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열망이 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의견을 묻는 사람'을 넘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헌법 번역 활동은 언어적 역량뿐 아니라 법적 감각과 비교법적 이해를 요구하는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각 국가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 정치체계, 문화, 사회적 갈등 등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직역으로는 그 본질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기본권'이나 '의회 권한'이라 해도 국가마다규정 방식이 매우 달랐으며, 헌법이 강조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또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시야에서 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시간으로, 향후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중간점검 조사는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이수희 구청장)와 관악구(박준희 구청장)의 공약의 실천현황을 조사하며, 지방정부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중간점검하는 작업은 단순한 행정 보고서 읽기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약이 실행된 정도를 확인하면서 실제 예산 편성, 정책 우선순위, 주민여론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책평가의 기준과 접근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면서, '행정'이라는 단어가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문 리서치를 진행하면서는 실질적인 법 적용과 그 과정에서의 갈등 구조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판결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을 꼼꼼히 읽고 관련 법률 조항과 판례를 검토하면서,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닌 현실 속에서 법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의 판례를 뒤집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법도 발맞추어 변화한다는 시사점을 준 것이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각기 다른 활동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법과행정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거나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삶, 제도의 작동, 사회적 갈등과 변화의 흐름을 생각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단지관찰자나 기록자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참여자이자 성찰하는 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점에서 이 활동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사회, 정치와 행정의 교차점에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참여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건국대학교 정 ○ 연

정치는 약속에서 시작되고, 행정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을 직접 조사하면서,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판결문 리서치를 통해 법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실현하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공약의 이행과 범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 사회는 균열을 겪는다. 행정에서는 '약속의 이행', 사법에서는 '법의 실현'이란 공통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두 활동을 통해 절감했다. 정책과 판례를 함께 바라본 이 경험은 나에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선8기 공약 이행률 조사를 수행하며, 단순히 공약의 존재 여부가 아닌 그 실행력과 현실성까지도 평가하는 관점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예컨대 번호 1번과 2번 공약처럼 도시개발 및 산업 유치 관련 사업은 비교적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4.5점을 부여했지만, 세부 이행계획이나 주민 소통 부족 등 일부 불확실성은 감점 요소가 되었다. 반면, 번호 5, 6번처럼 2027년 준공 예정이라는 비교적 먼 미래의 일정만 제시된 사업들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현재 단계가 없어 3점을 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번호 8번 '관리계획 용역 추진 등으로 아직 진행 중'이라는 문구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 주목할 점은 13~15번처럼 어린이·체험형 공간 조성 등 생활밀착형 공약에서 실질적인 추진 결과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실질적 체감도'라는 기준이 새롭게 생겼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무엇보다 시민이 정책을 '지켜보는 존재'일 때 행정은 더욱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나아가 공약 감시 활동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함께 자리 잡았다.

대법원 2023도13514 판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를 리서치하면서, 피고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깨달았다. 이 판례는 경제범죄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넘어선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통해 형사정책상 범죄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다. 무엇보다 형벌이 단순 응보를 넘어서 사회 정의 실현의 도구임을 느꼈다. <중략>

이번 공약 이행률 조사와 판례 분석은 나에게 '정책과 법'이라는 두 축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가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행정은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고, 사법은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 정의를 회복하는 장치임을 절감했다. 공약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 그리고 법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질 때 생기는 공정함의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행정과 법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중심에 시민의 참여와 이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는 이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진짜 사회 참여의 출발점임을 배웠다. 작은 조사와 한 편의 판례가, 나를 더 넓은 책임의 자리로 이끌어주었다.

○ 중앙대학교　정 ○ 석

지난 가을학기에 이어서, 이번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및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 의정활동과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행정부의 업무들과 제 관심분야인 노동 분야에 대한 법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감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숙지한다면 좋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봄학기 봉사활동 수행시간의 과반을 차지한 판결문리서치에 대한 내용이 여럿 기억에 남습니다. 202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점차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노동 분야에 대한 판결을 5개 살펴보고자 한 결과, 부당노동행위, 남녀 고용평등, 근로조건, 퇴직급여 등 다양한 노동쟁점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3심 판결문을 정독하면서 각 심급에서 재판부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들었는지, 하급심의 판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고, 결론적으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노동 분야에서 취해온 입장 및 그 변화를 체득한 것입니다. 언론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법적 기준 및 조언 을들은 적은 많았지만, 그 원천이 되는 법조인들의 권위 있는 판단을 학습했다는 것이 뿌듯해지는 봉사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행률조사 역시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자격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투표이고, 그 투표를 통한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공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설령 주의깊게 본다고 해도 그 공약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지를 생각할 뿐, 이들 후보의 당선 이후 공약의 행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체감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마지막에 가까워진 오늘날,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세웠던 공약 중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전혀 가망이 없었던 것을 구분하여 보니, 우리가 선거 후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내세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것인지를 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상기 공약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을 찾아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존보다 높은 해상도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것이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활동을 바라보는 렌즈를 갈고닦는 데 도움이되 었습니다.

이번 2025년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2번째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회고하여 보면, 지난 가을학기에 느낀 것 이상의 뜻깊고 보람찬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이 같은 봉사활동을 권유하던 제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은 활동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판결문 리서치와 공약이행률조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는데, 다음에 활동을 이어나간다면 그 밖의 다른 봉사활동 유형을 자진하여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동국대학교　조 ○ 정

이번 학기 동안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판결문 리서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판결문의 문장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판결문이 얼마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사용된 법률 용어의 난이도, 표현 방식, 주요 쟁점의 구조화 수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총 다섯 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정독하며 각 재판부의 논리 전개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면밀히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해당 사건에 관련된 판례 및 법조인의 이력,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법무법인의 승소율 등 부가적인 정보도 조사하여 보다 입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법 개념이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판결조차 사실관계 해석이나 절차적 정당성, 나아가 사회적 법감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해석이 깊이 개입되는 섬세한 영역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행정,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법의 기능이 단순한 권리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의와 형식, 절차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특히 제게 의미 있었던 점은 논리적 독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는 판결문 특유의 문장 구성이나 생소한 법률 용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구조적인 독해 방식에 익숙해지고, 복잡한 쟁점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 법률 문서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1심부터 3심까지 비교하며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각 판단의 논리적 흐름을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세부에 주목하는 인내심과 맥락을 읽어내는 사고력 또한 함께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략> 판결문은 단순한 '결론문'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법적 논의가 집약된 산물이며 동시에 시민의 법 감수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서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균형 있게 해석하는 훈련을 통해 이론 중심의 법지식을 넘어 실제 사회와 호흡하는 감수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법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법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법이 현실과 만나는 지점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실제 법률 실무에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법이 쓰이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이론과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합니다. 법과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산대학교　조 ○ 나

처음에는 30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언제 다 채울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어느새 모든 시간을 채우게 되었고, 그만큼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활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종류의 활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각 활동을 하며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략>두 번째로 한 봉사활동은 판결문 리서치였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하고, 현재 대학 수업에서 특허법을 배우고 있어, 특허법 관련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평소에 판결문을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으며 특허 관련 판례는 입문자가 분석하기에 쉽지 않았다. '시효이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과 같은 낯선 법률 용어들이 많았고, 판결문 특유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시효이익'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어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관련 자료를 따로 찾아보기도 했다, 이처럼 처음엔 막막했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점차 정리되어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었을 때 느낀 뿌듯함과 성취감은 무척 컸다. 또한 이번 리서치를 통해 법이 단지 문자 그대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당사자의 진의를 따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인상 깊었다. 나는 법이 매우 이성적이고 딱딱한 체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 동기, 인식 상태 등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외로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판결문 리서치를 계기로 법에 대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법과 더욱 친숙해지고 판결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중략>네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였다. 내가 맡은 지자체장의 공약수는 각각 59개, 112개로, 처음엔 예상보다 양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조사에 들어가 보니,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중에서 가장 수월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한번 훑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곤 했지만, 몇 년 뒤 그들이 실제로 약속을 지켰는지까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두 지자체장은 모두 중임에 성공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이번 임기에서 내건 공약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런 정보들이야말로 유권자가 선거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누군가를 뽑을 때, 단순히 이번 공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난 임기에서 어떤 약속을 실제로 지켰는지까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뽑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보여 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 이뤄지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활동은 법정 모니터링이었다. 필수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가볍게 참여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의외로 흥미로운 요소가 많았고, 결국 총 7회에 걸쳐 방청하게 되었다. 민사 재판의 경우, 방청만으로는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배경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판사, 변호사, 검사 각자의 역할과 태도에서 공정한 판결을 위한 노력이 느껴졌다. 인상 깊었던 것은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원고 또는 피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모습이었다. 개인의 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대신 주장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경의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법정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에 약간의 위압감도 느꼈지만, 여러 번 방청을 하면서 점차 익숙해졌고, 한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약 두 달 동안 다섯 가지 활동을 마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 벅찰 때도 있었지만,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을 때 느낀 뿌듯함이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해주었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법률이나 법적 절차 등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라도 쌓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으며, 나의 진로와 꿈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 서울대학교　조 ○ 영

2025년 상반기에는 외국 헌법 번역봉사, 청년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등 세 가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활동의 성격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법과 제도,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외국 헌법 번역봉사는 다양한 국가의 헌법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으로, 법률 용어의 해석과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핵심이었다. 번역 대상은 미얀마, 네팔, 니제르, 노르웨이 등의 국가로, 각국의 정치·역사적 배경과 통치체제를 반영한 조문들을 한국어로 옮기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다. 낯선 제도나 표현을 해석할 때는 해당 조항의 맥락을 조사하고,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정밀성과 명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으며, 각국 헌법이 인권 보장, 권력 분립,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다 .청년 법·정치의식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또래 청년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법과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면서, 청년들이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과 기대, 무관심과 회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활동이었다. 조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수는 대략 80-100개로 상당히 많았으며, 각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 공약이행 보고서, 관련보도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탐색해야 했다. 겉으로는 이행 완료로 분류된 공약이라도 실제로는 추진이 중단되었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행 상태로 분류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사한 정책 사례와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조사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공약이 단순한정치적 약속이 아닌, 행정 실행의 기준이자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한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이번 활동들을 통해 법과 제도를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중략>앞으로도 이번 활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가 사회 안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이어가고자 한다.

○ 인하대학교　주 ○ 화

이번 2025년 봄학기 봉사활동에서는 판결문 리서치와 필수활동인 법의식 설문조사와 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을 하였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활동을 통해 대법원 판결문의 그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분석해보는 일을 하였다. 처음 리서치를 시작할 때에는 사건번호부터 시작해서 당사자 이름 등 사건을 검색하는 것부터 헤메여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겨울학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판결문리서치 활동이라 수월하게 서치를 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해당 사건 관련 판사와 변호사의 이전 재판 내역을 서치하는 일은 서치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유료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판결문 리서치의 목적은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서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과 판결 요지를 파악하

는 게 쉽지 않았다. 우선 판결문에 씌여져 있는 말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말이 아니고, 말투가 ~아니하지 않다.처럼 헷갈리는 표현이 많았다. 판결요지와 근거를 정리하기 위해 판결문을 보면서 직접 손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적었다. 여러 회독 후 이 재판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과, 주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문은 한 두줄인데에 반해서 그에 대한 근거와 또 보충의견, 별지, 관련 법문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고 쉽게 이루어지는 재판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중요한 자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례와 법례를 적용하여 좋은 판례로 남겨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야 한다.

법의식 설문조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법과 사법 현안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과 외국인 현안에 대한 인식, 국회와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 선거와 투표 등에 대한 인식, 가정의 달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약 20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설문을 부탁하고 이를 추합하여 제출한 활동이었다. 지인들에게 어찌보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 설문을 부탁하였지만 이에 응답해준 것이 고마웠다. 추합하면서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가졌구나 생각하면서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주변 지인들은 모두 고향이 같거나, 학교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위 대상 설문조사에 비해 편향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당시 이슈가 되던 사항들에 대해서 여론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이하 생략>

○ 국민대학교　진 ○ 정

이번 학기 동안 저는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 충족이라는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활동을 진행할수록 단순한 의무를 넘어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자료집을 통한 간접 교육이었지만,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자세와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봉사보다, 사전 이해를 통한 준비된 참여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청년대학생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는 실제로 다양한 청년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현황을 직접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설문조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응답을 수집하고 내용을 정리하며 청년 세대가 정치에 대해 어떤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아닌, 방향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또한 언론 모니터링 사설 분석 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 주간의 신문 사설들을 분석하며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힘, 그리고 프레임과 시각의 차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사설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는 연습을 통해 저만의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학업이나 토론, 글쓰기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공약 점검 및 이행률 조사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수립되고, 또 현실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과천시와 광명시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단지 선거 때 등장하는 구호가 아닌 실제 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감시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52시간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한 이 모든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의 누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저에게 의미있는 배움과 성찰의 기회였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되고,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단발성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매우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채 ○ 진

중학생 때 청소년의회 등의 단체에서 기자 활동을 해온 나로서 이번 학기 언론모니터링은 친숙하고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 평소 포털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는 기사에 비해 오피니언을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설 내용에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필터 버블'에 빠져들어 한쪽에만 편향된 정보를 접하던 사람이, 유튜브 계정에서 로그아웃하여 정반대의 보도를 접하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에 놀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언론사별 사설의 논조 차이가 어느 정도일지에 집중하며 이번 모니터링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탄핵 정국과 미국發 통상문제, 국민연금 개혁, 사교육비 급증 문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등 굵직한 5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각 주제에 대해 키워드를 추출해 논조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총평과 결론을 달았다. 그런데 이번 분석을 통해서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 보편적 상식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탄핵 정국에 관한 사설을 봤을 때는 사법부 판단에 승복해야 하고 그 외 정치 세력들은 자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은 다르더라도 연금개혁을 꼭 완수해야 한다는 것과, 그 시기가 탄핵 선고 전의 시기라는 점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사별로 보도 내용이 일률적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성향이 다른 언론사끼리 공집합은 사회 통합의 필수적 밑거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언론모니터링은 최종 스크랩까지 정말 공들였었는데 법률연맹 측에서도 초안을 보고 내용·형식 모두 좋다며 완성도를 인정해주어 뿌듯했다.

판결문 리서치로는, 보험금 판례와 특허심판 전속법원에 대한 판례를 다루었다. 두 경우 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어느 정도 명쾌한 판례였다.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라서 선정하게 되었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보험사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조문 해석의 원칙과 합리에 기반해 적절하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했다. 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전문성이 있는 특허법원에 항소하는 게 옳다고 대법원이 확인해준 내용도 수긍이 가는 판결이었다.

공약 이행 분류 활동은 민선 8기 문경시장과 봉화군수 것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고민 방안이 엿보였다. 봉화군은 지역 특성상 스마트팜 분야 및 생태관광 분야를 키우려는 노력이, 문경시는 대학 유치 노력 및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지방균형발전의 취지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대해서 더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임기가 완전히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높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실현을 못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계속 군민, 시민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중략> 재작년·작년 두 차례의 봉사활동에 이어, 이번이 벌써 3번째 봉사활동이다.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주권자로서 공익 향상에 약간이나마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니 사실에 일면 뿌듯하다.

○ 고려대학교　채 ○ 빈

이번 학기는 새로운 필수 활동들이 있어서 저번학기와는 다른 느낌으로 즐거운 봉사였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직장인인지라 설문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재학 중이었다면 같은 학과 동기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 텐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하지도 않고 말도 몇 마디 섞어보지 못한 분들께 설문조사를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제가 회사를 조용히 다니는 편인지라..) 그래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을 긁어모아서 겨우 겨우 4개의 설문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공약이행률조사는 많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먼저, 기존 봉사자님이 찾아놓으신 공약 중에 아무리 검색하고 회의록까지 뒤져도 이행도는커녕 공약에 대한 내용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는 인터뷰나 기사만 찾을 수 있더라도 1점은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예 공약에 관한 발언을 한 내용 자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0점 처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죄책감이 들어서 구글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 내용도 찾을 수 없어서 진이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수도 200개가 넘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느낌까지 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광진구청장 김경호님이 공약들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연하게 정치인들이(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공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왔었는데, 막상 직접 조사해보니 실제로 이미 완성된 공약들도 많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는다던지 다양한 조사를 통해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해서 즐거웠습니다.

<중략>이번 학기는 상대적으로 필수 봉사활동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어서(예를 들어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을 찾고 부탁하는 데에 시간이 들었었고, 공약 이행률 조사는 거의 3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법정모니터링에는 하루밖에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법정에서만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는데, 마약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많이 녹아들어있기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급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4년 겨울학기에 이어 봄학기에도 저에게 봉사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기회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국대학교　천 ○ 훈

[법정 모니터링 봉사]법정 모니터링봉사를 하면서 총 3번 법정을 가봤다. 태어나서 처음을 법정에 가본것이고, 재판 방청이란 것도 처음 해봤다. 봉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법정과 재판은상당히 나와는 거리가 먼 곳이라 생각했다. 가보거나, 관련 있거나 하는 일이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새로웠다. 하나의 재판이 되게 대단한 일인 줄 알았고, 막연히 드라마에서 본 모습을 상상하고는 했다. 하지만 실제 법정의 모습은 그와 달랐다. 매우 엄숙했으며, 변호사와 검사의 설전, 변호사의주장들을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닌 사건의 요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 소액 심판의 경우는 상당히 짧은 소모 시간으로 인해 이게 재판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게 재판에 대한 나의 생각은 변화되었다. 결국엔 재판의 본질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그에 대한 목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재판의 판사, 변호사, 검사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국민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이 봉사활동의 목적이라 생각하며나는 무슨 법조인이 되어야하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판결문 리서치 봉사]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해석하고 요지를 파악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에 관한 것을 모두가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판결문 리서치 봉사의 내용이자 목적이다. 법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그래도 판결문을 쉽게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가않았다. 기본적인 판결문을 찾아본 적이 없어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이 미숙했고, 그 구성도 잘 몰라 쟁점과 주장 판단과 근거를 알기도 어려웠다. 총 5번의 판결문리서치를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진 것은 주로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해석에 따라 누구의 주장이 맞게 되는지가 달라졌다. 또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사람이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서는 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소수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에게 옳다고 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옳은 판례가 쌓여서 또 다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되기 때문이다. 위 봉사활동은 이런 판례들에 대한 생각과 법률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한다.

○ 서울대학교　최 ○ 윤

이번 학기 총 세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에 자원하였다. 먼저 법률 관련 번역 봉사의 경우, 세계 각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헌법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자 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나는 총 네 개의 나라에 배정받아 마샬제도, 나우루, 네팔, 나이지리아의 헌법 중 일부를 번역하였는데, 각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고 법률인 헌법의 조항들이 모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 및 국가 공동체의 정당한 통치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동일한 취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었기에 이를 비교해보는 과정도 몹시 흥미로웠다. 번역물을 받아보고 나서는 바로 번역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매번 해당 국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정보를 먼저 조사하였는데, 이때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개괄을 알아보는 것이 번역시 사용할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문맥 내에서 원활히 법률 조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략>또한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주변 대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법정치의식 설문조사를 40부 진행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법과 사법 현안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및 외국인 현안에 대한 인식, 국회와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 선거와 투표 등에 대한 인식, 가정의 달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을 한 명 한 명 대면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로 대학생 및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묻는 문항에 대해 '경제 전문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이 법조인과 정치인에게 도덕성, 소통능력과 같이 정량화하기 어려운 역량보다는 직관적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 지자체장 가운데 전라북도 완주군 유희태 군수와 순창군 최영일 군수에 대해 각각 125개, 157개 공약의 이행률을 조사하였다. 선거 당시 제시된 공약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은 공약들도 여럿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서 수행했던 법정치의식 설문조사에서 후보자의 어떤 점을 주로 고려하여 투표하냐는 질문에 대해 '정책 및 공약'을 고른 응답자 수가 많았던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번 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통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참여해볼 수 있었다. 특히 유권자 의식 조사를 진행하며 현재 우리 사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다는 점이 하나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도 봉사를 지속하며 더욱 폭넓은 경험을 쌓아가고자 한다.

○ 연세대학교　최 ○ 혁

이번 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법률과 사회의 연결 지점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제 법률 적용의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책상 위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법이, 실무와 사회 문제를 만나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몰타, 니제르 등 다양한 국가의 헌법 번역 작업을 하며,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헌법이 매우 다르게 구성되고 해석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조문과 비교하면서 '헌법이란 각 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압축한 일종의 정체성'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도 많았지만, 꾸준

히 번역하고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 영어와 헌법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활동이 저에게 더욱 의미가 깊었던 이유는, 이번 학기 '헌법총론' 이라는 헌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함께 했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병행 과정에서, 국내 헌법과 해외 헌법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이 헌법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법치국가에서 수많은 법률의 상위 규범이 되는 헌법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략>이번 활동들을 통해 저는 단지 과제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왜'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법이 사회와 소통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는, 이번 경험을 단순한 경력의 일부로 넘기지 않고, 법률가로서 갖춰야 할 시야와 책임감을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 분석과 판결문 리서치 활동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수준을 넘어, 현실 속 법의 실천적 역할을 체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법조인이 되겠다는 제 진로 방향에 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와 같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사람을 넘어, 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해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실천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그 시작점이자, 제 진로의 방향성을 다잡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법률이 사회와 인간을 잇는 다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 경희대학교 최 ○ 원

헌법 번역, 공약 이행 평가, 그리고 사회·정치 이슈 분석이라는 세 활동을 수행하며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정보의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법과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보다 널리 알리는 일이었다.

먼저, 네팔과 몬테네그로 헌법의 번역 작업은 나에게 낯선 체제와 가치의 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법률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이 아니라, 각 조항이 뿌리내린 정치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함께 이해해야 가능한 작업이었다. 특히 네팔의 연방제 구조, 몬테네그로의민주주의적 헌법체계 등은 한국 헌법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비교하며 '헌법'이란각국 시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어로 정제된 번역문을 통해, 연구자나 학생들이 비주류 국가의 법제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공약 이행 평가 활동은 훨씬 더 실질적인 현실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대전광역시의 지방선거 공약 수백 건을 수집하고, 그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정책 집행 간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두 개 이상을 근거로 이행 점수를 수치화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는 일은 많은 시간과 정밀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만큼 지역사회와 정치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이 어떤 정보를 통해 행사되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사회·정치 이슈 분석 활동은 내가 소비자이기만 했던 '뉴스'를 다시 읽는 방식으로 바꾸어주었다. 단순히 기사를 읽고 분노하거나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적조항, 정치적 배경,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실 기반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한 이 활동은, 내가 지향하는 공정성과 비판적 사고의 원칙을 시험하는 기회였다.

이 세 활동은 모두 나로 하여금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소비되는지를 전방위적으로 고민하게 했다. 또한, 법률과 정치라는 분야가 결코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시민이 일정 수준의 이해와 감시 역량을 가져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임을 절감하게 했다. 앞으로도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작은 활동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 서강대학교 허 ○ 주

라오스 헌법 번역과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평소 법조인을 꿈꾸며 법률 공부를 해왔지만, 직접 관련 활동을 체험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졌다. 단순히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헌법 번역 활동을 통해 라오스의 법 체계와 한국의 법 체계를 비교하며 각국의 법률적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확히 해석해야 했기에 더욱 신중하게 작업해야 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향후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분석력과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 또한, 번역을 진행하며 라오스의 법 체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중략>재판을 직접 방청하면서 법률적 절차와 법정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역할과 각자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피고인의 입장과 증인의 증언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법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며, 법적 논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조율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행정재판에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법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법조인의 역할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실무적 감각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고, 더욱 성실하게 법률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모니터링 활동은 단순한 법률적 지식 습득을 넘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법정에서의 발언 하나하나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며,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책임과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법률 공부를 할 때 단순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이번 활동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법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더 나아가,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연구하며, 실질적인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법률 토론이나 논문 작성 등 더욱 심도 있는 학습을 병행하여 법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법제도와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법적 감각도 함양하고 싶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앞으로의 법률 공부와 법조인으로서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다.

○ 고려대학교 홍 ○ 진

이번 2025학년도 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하면서, 법을 통해 사회와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번역 봉사 자체를 통해 영어 실력을

기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영어 단어들이 법조문에 사용되었을 때에 갖는 다른 의미를 확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를 그 나라의 헌법과 연관 지어 보면서 그 나라의 헌법적 특색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다른 국가의 헌법을 비교해보며 우리나라의 헌법만의 특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방청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사실 법조인을 꿈꾸면서도 정확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 법원 방청을 하기 직전까지는 막연한 두려움과 중압감이 있었는데, 재판 방청을 실제로 해보면서 재판 역시 우리의 실생활의 일을 다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부하며 이론으로만 배웠던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현재 형사소송법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여러 형사재판을 방청하며 형사소송법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여러 절차들이 어떻게 실제 법정에서 적용되는지 보며 배운 지식과 현실을 일치시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의 참여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며, 같은 직책이여도 개인마다 재판의 각 과정을 대하는데 있어 수많은 스타일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되고 싶은 법조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도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며 제 생각보다 공약이 잘 지켜진 분야도 있었고, 잘 지켜지지 않은 분야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의 기능은, 단순히 앞으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을 넘어, 뽑혔던 사람이 공약을 잘 이행했다면 다시 뽑고, 그렇지 못했다면 뽑지 않는 평가적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 이행도 평가 활동을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략>법률소비자연맹 봉사를 하며 학기 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한 가지 방식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의 봉사를 통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학기 중이라 판결문 리서치 등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고, 다른 활동들 역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을 피드백으로 삼아, 다음 여름학기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방학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잘 활용하여 더 다양한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문의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더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셨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균관대학교　홍 ○ 은

2025년 봄학기 동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법과 사회, 그리고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 번역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몰타, 말레이시아, 몰디브 등 여러 국가의 헌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각국의 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의 분위기까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번역할 때마다 단순히 의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말에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정치체계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봄학기 봉사에서 처음으로'민선8기 지자체장 공약이행률 조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본 활동은 각 지자체장이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의 공식 자료, 언론 보도, 의회 회의록, 지방재정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약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 공약은 애초에 모호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선거 공약의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공약 작성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단위임을 체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공공정보와 행정자료들을 접하며,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황 ○ 연

작년 가을학기와 겨울학기에 이어, 올해 봄학기까지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세 번째 봉사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전 활동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였다. 사회면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 발생 소식은 여러 기사로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떤 제도적 조치가 뒤따랐는지,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거 공약도 비슷하다. 선거철이 되면 우편함에 꽂힌 선거 공보물을 꺼내 읽어보며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공약이라면 더더욱 알기 어렵다 .이번 민선8기 기초지자체장 공약 이행률 조사 활동에서는 강원도의 두 지자체를 맡아 조사하게 되었다. 각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약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담은 점검 보고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었다.두 지자체 모두 지리적 특성상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공약이 특히 많았다. 특히 관광·문화 사업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색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다.행정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사회의 현실과 행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되었다. 지금까지 세 학기에 걸쳐 약 100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지만,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은 그 누적된 시간 이상의 값진 의미를 지닌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이하 법률연맹 홈페이지의 자원봉사 소감문을 참조

The Due(True)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the Firmest Pillar of Good Government
공정한 사법은 민주국가의 가장 튼튼한 기둥이다.

미국 George Washington이 1789.9.28.초대 대통령 취임직후 초대 법무부장관에게 당부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임.
현재 뉴욕 변화가 Supreme Court에 각인 · 선언되어 있음